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5, 2017 Vol. 560

美115대 국회 초선의원 91% '기독교인'

이들 중 50% '개신교' 33.3% '가톨릭'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美의회 초선의원 중 9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채워질 예정임을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새로운 분석에 의하면, 美의회 기독교인의 비율은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유지돼 왔다.

이러한 비율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미국 성인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더욱 눈길을 끈다.

4일 워싱턴D.C에서 첫 업무를 시작한 제115대 초선의원들 가운데 91%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 이상은 개신교인이며 33.3% 이상은 가톨릭교인이었다.

공화당의 경우, 공화당 의원 293명 중 2명을 제외한 291명이 기독교인이다. 2명은 유대인으로 뉴욕주의 리 젤딘 의원과 테네시주의 데이비드 쿠스토프 의원이다.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 의원 242명 중 유대인은 28명, 불교인은 3명, 힌두교인은 3명, 무슬림은 2명, 유니테리언교인은 1명, 무신론자는 1명이었다. 자신의 종교적 성향을 밝히길 거부한 의원은 10명이었다.

제114대 국회에서 침례교 소속 의원은 7명 줄었고, 정교회 소속 의원도 6명 줄었다. 몰몬 소속 의원은 3명 줄었고, 가톨릭 소속 의원은 6명 늘었다. 무슬림은 과거와 비슷했으며, 힌두교인과 불교인 수는 증가했다.

상하원 모두 개신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원의 경우 58%, 하원의 경우 55%였다.

침례교인은 상원보다 하원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장로교인과 루터교인들은 하원보다 상원에 더 많았다.

약 70%에 가까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개신교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50%는 침례교인, 감리교인, 성공회교인, 장로교인이나 루터교인이었다.

473명의 현역의원 외에 이번 회기에 새롭게 들어오는 초선의원 62명 중 50%는 개신교인, 33.3%는 가톨릭이었다.

지난 10년에 걸쳐 미의회 내 기독교인들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의미심장한 교단 간의 이동이 있었다.

개신교인의 점유율은 제87대 국회 당시 75%에서 현재 56%로 떨어졌으나, 가톨릭교인의 점유율은 20%에서 33.3%로 늘었다.

이번 데이터는 미국 경제지 씨큐롤콜(CQ Roll Call)의 설문과 의원 및 후보 사무실에 후속 전화 설문을 통해 작성됐다.

강혜진 기자

자기 개혁 먼저 실천하는 한 해 되길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2017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세계가 혼란스런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2017년 새해는 미국은 말도 많고 힘겹게 세워지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대선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전세계는 IS테러와 국가간의 분쟁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복잡한 외교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무섭게 타락하는 사회속에서 우리 교회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미국과 한국,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습니다(마 5:13,14).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어두워가는 세상의 빛으로 제역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지도자들보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있습니다.

2017년 새해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때입니다. 종교개혁은 철저한 자기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모든 영역에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가정이나 교회나 온통 성경 읽기 운동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교계 지도자들부터 내가 먼저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2017년 새해 모든 교회들과 교민 사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자

2016하이어콜링 컨퍼런스

2016년 12월 20일~23일까지 순무브먼트(Soon Movement, KCCC)가 샌디에고에서 개최한 대학생 선교 컨퍼런스인 '하이어콜링(Higher Calling)'에 800여 명의 한인 청년, 청소년들이 참가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들을 선교의 소명으로 이끌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 대회의 올해 주제는 "리서전스(Resurgence, 겔 37:5~6)"였다.

이번 집회에서는 션 맥도웰, 제시카 해리스 등이 주강사로 나섰다. 션 맥도웰은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인 조쉬 맥도웰 목사의 아들로, 기독교 교육자이면서 저술가, 변증가다. 제시카 해리스는 포르노 중독에서 해방돼 현재는 다양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크루의 국제선교 디렉터인 셰인 세바스찬, 마술로 복음을 전하는 짐 먼로, 하일랜드코너스톤교회의 데이빗 오 목사도 주강사를 맡았다.

이번 하이어콜링에서는 직업적 소명, 믿음과 일, 우울증, 성과 순결, 기독교 변증 등 12개 주제의 선택 강의가 진행됐다. 1996년부터 열린 하이어콜링은 원래 대학생들만을 위한 행사였는데 2010년부터 지역사회 한인 2세 청소년들에게도 개방하기 시작했다.

순무브먼트는 대회 기간 내내 24시간 기도실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이 언제든지 영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윤형 기자

지난해 12월 20일~23일, 하이어콜링 컨퍼런스가 샌디에고 타운앤컨트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청소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노르웨이 루터교회, 480년만에 국교 지위 상실

교회 소속 직원…공무원 신분 유지 못하게 돼

노르웨이 루터교회(Norway's Lutheran Church, NLC)가 정부로부터 국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노르웨이 의회가 종교간 형평성을 명목으로 국교 금지 결의안(2008년)을 채택하고 헌법 개정(2012년), NLC 독립법인화 법안(2016년)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다.

NLC 독립법인화 법안에는 '루터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종교로 남을 것'이라는 현행법 문구가 완전히 삭제됐다. 이에 따라 1,250명에 달하는 루터교 목사와 지역교구장, 교회 소속 직원은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NLC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지속된다.

노르웨이의 정교 분리는 1537년 덴마크 국왕이 덴마크령 노르웨이에 칙령으로 노르웨이 국교회(루터교회)를 설립한지 480년 만이다. 181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노르웨이가 헌법에 루터교회를 국교로 명시한 시점으로 따지면 203년 만이다.

노르웨이 인구의 74%(약 380만 명)가 루터교 신자이지만, 지난해 9월에는 온라인 교인 등록 시스템을 적용하자, 약 4만여 명이 탈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2017년 3.1절에 서울의 미스바 '치유하는 교회' 로 모이십시오!
UNTIL THE DAY 그날까지 선교연합 KCC
나라와 민족을 위한
3·1절 통곡 기도대회
남북한의 복음통일과 대한민국의 민족적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은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지 교회들의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일시: 2017년 3월 1일 (수) 오전 10시 - 오후 4시30분 장소: 서울 치유하는 교회 (담임 김의식목사)
(07773) 서울 강서구 강서로15길 37 (화곡1동 346-46) TEL. 02) 2603-6221, 2601-0675
참가문의 및 안내: TEL. 949.297.3788 (문성범 실장, 우상문 실장) 해외참가자 신청마감: 1월 말
*항공료 일부지원은 현역 목회자에 한하며 심의를 요함
■ 주관: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 공동대표: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김영길 목사, 김인식 목사, 이재호 목사, 손인식 목사
■ 연락처: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 Viejo, CA 92691
이메일: utdusa21@gmail.com / 홈페이지: www.kccnk.org / 카카오톡 ID: utdkcc

화해와 치유로 여는 정유년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온 2016년 한 해는 미국에나 조국에나 갈등의 한 해였고 그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대선에 의하여 민심이 나뉘어졌습니다.

조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보기 드문 상황과 대선주자들의 세 불리기 경쟁으로 민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혼돈과 갈등의 세상이 될수록 화평하게 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과 도전, 그리고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이민 교회와 한국 교회는 하나같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 됨의 소명을 심령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입니다. 아울러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신문사와 언론기관은 세상 속에 분열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화해와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의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막강한 권력과 강제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을 죽임으로 이루는 평화요, 하나는 내가 죽음으로 이루는 평화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후자요, 교회의 방법도 후자요, 모든 복음적 유관단체의 대안의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상한 갈등이 예상 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소명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 해의 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화해와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한 해가 2017년으로 넘어온 이민 사회와 이민교회와 복음적 단체의 명제가 되게 하소서.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에 속한 목회자들이 2016년을 보내는 송년모임을 함께 했다.

"남가주교협·남가주목사회 연합 송년모임"

지난해 12월 29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최순길 회장)과 남가주목사회(김영구 회장)가 함께 LA 한인타운의 한 중식당에서 송년모임을 했다. 목회자들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이어 식사와 장기자랑, 선물교환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영구 목사회장은 "한 해 동안 교계가 시끄러웠던 일들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2017년을 맞기로 했다. 새해에는 사회적 기본 윤리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목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2016년 구세군나성교회가 한 달 이상 진행한 자선냄비 모금을 종료했다. 총 모금액은 2015년보다 8천 달러 증가한 4만 8천 달러로 집계됐다.

구세군 나성교회

자선모금 행사 통해 총 4만 8천 달러 모금해

2016년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한인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이 지난해 12월 24일 종료됐다.

지난해는 5만 달러를 목표로 했으나 이에 조금 못 미치는 4만 8천 달러를 모금했다. 참고로 2015년도 모금액은 4만 달러였다.

구세군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김스 전기, 한남체인 등지에서 모금을 벌였고 마지막 모금일인 지난해 12월 24일에는 구세군 악대까지 모금 장소에 등장해 아름다운 캐롤을 연주하는 등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모금에 동참하며 이웃섬김에 솔선수범했다.

*문의: 213-480-0714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미주복음방송의 (왼쪽으로부터)고승희, 민종기, 한기홍, 진유철 이사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GBC 감사결과 '재정 의혹 해소'

미주복음방송(GBC) 전 사장 임덕순 장로의 사임과 함께 불거진 방송국의 재정 불투명성 의혹에 대해 이사들이 "감사 결과 재정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3일 애나하임에 있는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임시 이사장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와 상근 이사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를 비롯해 이사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참석했다.

7명의 이사 가운데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임종희 목사(방송국 설립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기자들에게 즉석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외부 감사와 자체 감사 결과 재정적 의혹이 해소되었지만, 의혹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 전 사장이 이사장에게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이사회에서 사의가 수리된 후, 이사들은 방송국 재정 상황에 대해 안팎으로부터 상당한 강도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기홍 목사는 "개인적 소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므로 이사회에서 계속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재정만큼은 이 방송이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했던 문제"라고 부연 설명했다.

먼저 조 앤 강(Cho & Kahng) 회계법인의 대표 조용직(Stephen Y. Cho) 회계사 명의로 작성된 외부 감사 보고서는 방송국 자금 이동 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이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방송 스테이션 구매와 정부로부터 획득한 방송 라이선스 비용, LA 구 사옥 매각과 애나하임 신 사옥 매입 자금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담당자의 회계 업무를 리뷰한 결과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고 명시했다.

임 전 사장이 헌금 10만 달러를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이 보고서는 "임 전 사장이 이북 선교에 전념한 것을 아는 분이 현금 10만 달러를 이북 선교에 후원했고 직원 3명이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민종기 목사는 "이 헌금은 (헌금자가) 방송에 사용하라고 한 헌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장은 2015년 9월 미주복음방송 사장이 되기 전인 2013년 3월부터 국제하나사랑재단(구 미주겨레사랑) 대표로서 북한 선교를 해 오고 있다.

이사회는 방송국 밖으로부터 제기되는 의혹 외에 방송국 내에서 제기된 의혹을 의식한 듯, 설립자이자 전 사장이면서 현 이사인 임종희 목사, 현 직원, 전 직원 등 3인으로 구성된 감사팀이 내부 감사도 진행토록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자 감사 보고서에서 "합리적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확히 회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했다.

이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적 기관인 미주복음방송의 사장 사임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성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이사들은 차제에 그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며 애청자들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해 방송사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결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사회는 스스로를 비상이사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7명의 이사 가운데, 현재 시무하는 교회에서 안식년 중인 고승희 목사를 상근 이사로 파견했다. 고 목사는 "직원들의 사기와 팀웍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주복음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기도 모임을 열 예정이다. 비상이사회는 2월 중 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사장이 선임되면 비상 상황을 종료하고 평소의 기능으로 복귀한다. 민 목사는 "사장 선임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고 영적 리더십과 함께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 방송에 대한 사랑과 경험, 열정을 가진 인물인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립자이자 전 사장 임종희 목사가 은퇴 후, 불법적으로 방송국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은퇴 당시 설립자로서의 공로를 인정해 퇴직금과 함께 자문 비용을 드리기로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위과정	• 선교학 박사 (D.Miss)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 선교학 석사 (MA ICS)
	• 신학사 (BA)
특 혜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학비, 다양한 학교장학금 수여 • English Track • LA Extension Class • 유학생 I-20 발급 • 연방정부 학비보조 (FSA) • 100% 온라인 수강으로도 졸업 가능 • HD 고화질 온라인 강의 •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LA 지역 입학설명회	
장소 및 시간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주요 순서	학위인가소개 학위과정소개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소개 샘플강의 소개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혜 택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면제 추천 및 Grace 장학금 지급(해당자에 한함) 간단한 다과와 음료 준비

• 2017년 봄학기 등록시작 : 2017년 1월 3일(화)
• 봄학기 수업시작 : 2017년 1월 30일(월)
■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나성순복음교회가 2017년 세계 선교를 다짐하며 멘델스존의 〈사도 바울〉을 연주했다.

나성순복음교회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로 세계 선교 다짐

나성순복음교회가 이번 송구영신예배에서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을 무대에 올렸다. 독일 낭만파 음악의 거두 멘델스존의 여러 작품 가운데에서도 이 작품은 오라토리오의 극적인 요소를 가장 잘 살린 대표작으로 꼽힌다.

나성순복음교회 성가대는 이 작품 총 45곡 가운데 제2곡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니, 제7곡 오! 예루살렘 선지자를 죽인 예루살렘아, 제14곡 사울의 회심, 제15곡 일어나 비추라, 제16곡 잠자는 자여 파수꾼의 소리 들으라, 제44곡 그는 이제 희생제물 되었도다, 제45곡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등 7곡을 불렀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한 후, 순교한 스데반의 이야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추적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다 결국 자신도 순교의 제물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구성이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라는 구호 아래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나성순복음교회가 새해를 맞이해 세계 선교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 교회는 2017년 새해부터 10-10 운동이란 이름으로, 미국 내에 10개 교회, 선교지에 10개 교회를 세우거나 후원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도 바울〉 연주 후에는 칸타타 형식으로, 성가곡, 편곡 찬송가, CCM 등 다양한 곡을 어린이 성가대,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은혜 아니면" 같은 CCM도 있었고 바흐의 칸타타 중 명작으로 꼽히는 80번 "내 주는 강한 성이요"도 연주돼 큰 박수를 받았다.

연주회 직후에 드린 송구영신예배에서 진유철 담임목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수 24:1~3)"란 설교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의미 있는 2017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김영구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장

남가주의 모든 목회자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는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은 남가주 한인 목사회의 50년의 해이기도 하며 기독교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스스로 획득할 수 있다 믿었던 중세 기독교의 오류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마틴 루터가 새롭게 개혁한 기독교의 정신이 재정립되는 거룩한 2017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가주 한인 목사회는 이사야서 46장 3절~5절까지의 말씀대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정한 왕 이시고, 우리들은 그 왕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순종의 역할밖에 없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처럼, 나란 존재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나란 존재의 삭제 속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2017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사 46:3~5)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기 편하게 등에서 발버둥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기와 질투로 시작되는 불화가 모두 나란 존재에 대한 구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에는 남가주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에 진실된 제자도가 다시금 확립되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질문하며 사는 성도가 되자

류종길 총장
미성대학교

정유년(丁酉年)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지역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에 뜻밖의 사건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에서 '글로벌 뉴스'(Global news) 카테고리를 살핀 결과 2016년 세계 10대 뉴스는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US Election)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렉시트(Brexit) 곧 영국의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사건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사용한 단어인데, 아무리 영국 내에서 EU의 탈퇴를 요구할지라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여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23일의 국민투표에서 51.9%인 1742만 명의 찬성에 의하여 EU 탈퇴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Orlando Shooting), 다섯 번째가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사건, 일곱 번째가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니스(Nice)에서 84명이 사망한 2016년 7월 14일의 대형 트럭을 몰고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Brussels)에서 3월 22일에 있었던 자벤템 국제공항과 시내 지하철역 등에서 벌어진 연쇄폭발로 3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과 7월 7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있었던 댈러스 경찰 총격 사건(Dallas Shooting)과 4월 14일, 일본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 지진(Kumamoto Earthquake) 사건 등이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들이며,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2016년 특별한 사건들은 ①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②박대통령 탄핵결의와 광화문 촛불의 역사 ④온 국민을 떨게 한 경주지진 사건, ⑤이세돌과 알파고의 격돌, ⑥옥시 가습기의 사건 등이 10대 뉴스 속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2016년 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에도 반드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지구촌과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이 질문들을 계속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한 생애를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2017년은 일 년 내내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남가주 군사랑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 탄생

LA 군사랑 선교회와 남가주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가 연합하며 하나가 됐다.

LA 군사랑 선교회(회장 김회창 목사)와 남가주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회장 권영구 장로)가 '남가주 군사랑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란 이름 아래 통합했다.

이 두 단체는 지난해 12월 31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연합 송년모임을 열었다. 예배에서는 권영구 회장이 대표기도, 김회창 회장이 "조국을 사랑하는 두 군인"(민 14:1~10)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자리에서 LA 군사랑 선교회는 비전시각장애인센터의 추영수 목사에게 선교기금을 전달했고 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정기 모임을 해온 LA 군사랑 선교회는 남가주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와 하나 되면서 이 단체의 정기 모임 일정에 맞춰 매달 둘째 토요일 오전 11시에 영생장로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다.

"소망의 등불을 더욱 밝게 하자"

윤 목 회장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던 말도 안되는 정치적 부패와 비리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사회와 종교까지에 이르는 실망스런 이야기들이 어찌 그리 많았었는지요……

하지만 이 때에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그 분은 어둠을 밝히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요 1:9), 영광의 소망이시며(골 1:27),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사 43:19)

이것이 복음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예수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하는 것.....

마치 에스겔의 성소에서 솟아나는 물줄기가 강과 바다로 흘러 모든 생물을 살리듯, 소망 없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두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듯…

하나님은 분명히 2017년에 우리를 통해 이 소망의 새 일들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소망의 등을 밝게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새해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꿈꾸는' 이유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7년 대망의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찬연하게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미주지역 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고국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채 우리는 2017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인종갈등과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분쟁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테러의 위협도 세계 시민이 여전히 느끼는 현실적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를 통해 이대로 가면 한인교회가 1세 교회로 단명(短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기적 개교회주의와 화합하지 못하는 교계의 현실로는 거칠고 도도한 세속화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자괴감(自壞感)도 듭니다. 바벨탑과도 같이 신적 영역을 넘보는 과학기술문명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가 복음에서 더욱 더 멀어질 것 같은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꿈꿉니다. 우리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오는 세대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희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숫양 한마리로 이삭 대신 번제물을 바친 아브라함이 그런 극적 반전이 가져다준 하나님의 은혜와 궁극적 기쁨을 맛본 것럼, 우리와 인간 역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과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희생적 결단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과제 속에서 2017년을 맞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인교회와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한인사회와 미국이 복음의 근간을 붙잡고 씨름하여 더욱 도약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2017년 새해를 살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의 범사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점퍼 나누기

지난해 12월 18일 사랑나눔선교회(대표 이춘준 목사)는 샌버나디노에서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를 했다. 이 지역에서 하는 첫 행사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점퍼, 장난감, 학용품 등을 나누며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희망과 소망'의 힘

문일명 회장
밸리교역자협의회

2017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형통케 하심의 축복이 풍성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나간 2016년 한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만으로는 쉬 지나갈 수 없는 굵직했던 사건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해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과정과 아울러 곧 닥쳐올 온갖 변화와 변수에 대한 혼돈과 기대감과 두려움,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 받은 충격과 분노와 허탈감… 늘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쉬 헤쳐 나가기 어려운 한 해였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희망과 소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희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이요 참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뼈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태산이 눈앞을 가리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다 라고 여겨지는 난관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보수'를 추구하는 새해되길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학교

몇년 전, 청장년을 도전하는 집회에서 제가 "나는 보수입니다"라고 했더니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웅성웅성 대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보수의 뜻은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겁니다." 그제야 청중이 고개를 끄떡였습니다.

사람은 보통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헌 옷보다 새 옷을 좋아하고,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재활용하기 보다 새 물건을 장만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새 것이 다 좋고, 옛 것은 다 나쁘다, 필요없다, 바꿔야한다란 이원론적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Keep 해야 할 것은 keep 하고, change 해야 할 것은 change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2016년을 정리하며 무엇을 keep하고 무엇을 버리고 change 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보수' 작업은 제 내면을 살펴보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헌신했을 때의 초심 (初心), 주를 만났을 때 느꼈던 첫 사랑, 순수한 마음 등을 keep 해야 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새해에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 해 주님을 깊이 알아 가야겠습니다. 반면, 몸에 벤 나쁜 습관, 편리와 편안함을 선호하는 몸사림, 그저 항상 해 왔기에 그냥 하는 신선함 없는 익숙한 행동 등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 '보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켜야 할 원리 원칙, 자세, 마음 가짐, 영성 등은 꼭 지키고, 수정해야 할 것은 신속히 수정한다면 금년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될 것 입니다.

세상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사, 교장으로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열심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보수'하기로 마음을 다지며 2017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보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새해되길

최순길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으로서 2017년은 남가주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이민을 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 것처럼 2016년을 돌아보면 누구나 즐겁고 감사한 일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떠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주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찬 2017년을 향하여 전진의 행군 나팔을 불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가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도 이처럼 출발하시기를 바라오며 저희 남가주교회협의회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남가주에 있는 교회와 산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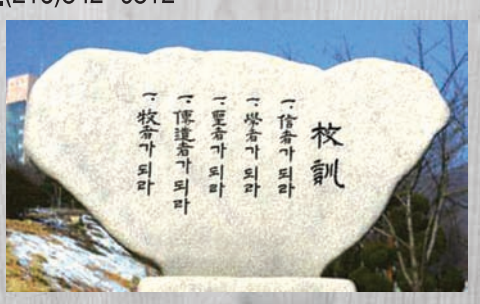
2017년 신년하례회

새해가 밝았습니다.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 신년하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동문 제위께서는 귀한 하례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동문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 시 주후 2017년 1월 11일(수) 오전 11시
장 소 영생장로교회(김혜성 목사(48회) 시무)
주 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연락처 회장T.(714)713-0677, 서기T.(213)422-8916, 총무T.(213)842-6812

자문위원장 : 조천일 목사 부회장 : 정진기 목사
자문위원 서기 : 김혜성 목사 총 무 : 이규만 목사
회 장 : 윤태근 목사 서 기 : 이동규 목사
수석부회장 : 표세흥 목사 회 계 : 임균만 목사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의 5대교훈
- 신자가되라
- 학자가되라
- 성자가되라
- 전도자가되라
- 목자가되라

교육이념
총신대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기독교 지도자 교육기관이다.
총신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개혁주의
교리에 따라 학문연구와 영성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사명으로 한다.

교육목적
총신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개혁주의적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학문의이론과 그 실천방법을 연구교수함과 동시에 신앙 인격의 도야를 통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1) 지성 : 성경적 신앙에 기초한 고도의 기독교 학문을 수립한다.
2) 영성 :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경건을 훈련한다.
3) 인성 : 칼빈주의세계관을 실천하여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한다.

총신의지향목표
1)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개 혁주의 신학의 보루
2)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에 입각한 학문추구
3)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에 충실한 사역자양성
4) 기독교이념을 구현할 교육지도자, 음악지도자, 평신도지도자 양성
5)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의 실천 및 문화창달의 주역
6) 통일조국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
7)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재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장 윤태근 목사·서기 이동규 목사

끝날의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요한계시록 11:1~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요한계시록 11:1~13

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9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한때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 사람들 때문에 종말론이 왜곡되게 가르쳐져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고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러한 이단사상에 동요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대로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역사적 종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한이 모두 차면 지금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동안 환란의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처음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증거 자들이 그 환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기를 북돋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란 날에 능력의 증인을 보내어 믿음의 힘을 돋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거룩한 성'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흔 두 달은 1,260일이고 그것은 3년 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붙인 바 되어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환란의 기간 동안 진실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 성도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 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단 7:23~27)"는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2~8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마는 예수님의 상징으로 복음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을 탄자가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가 그 뒤를 잇는다는 의미이고 손에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을 탄자는 자본주의를 의미하며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받은 계시가 시간적으로는 8~9백년 차이가 있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며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후 3년 반 동안은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 기물과 70년동안 노예생활한 모든 품삯을 받아오게 하셨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축으로 세워서 제2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웅대한 성전에 비하면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모양은 보잘 것 없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들이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4:3에서 얘기하는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1:1~2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연합을 위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구원얻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며 그 사람들은 계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환란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이들의 입에서 불의 권세가 나가서 악의 무리들을 무찌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한 증인들의 이적 기사들을 볼 때 성도들은 핍박과 환란을 통해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환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밑바닥이 없는 구멍, 즉 무저갱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 권세와 힘을 얻은 증인들과 싸워서 이 증인들은 순교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짜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이 두 증인을 죽였던 이유는 자신들의 양심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꺼려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와 바른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에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후 3년 반의 환란을 겪고 나중에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성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영광중에 결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21:31~36)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Happy New Year 2017

남가주 새생명 교회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뼈를 군대로"

1. 기족이 삶이 되는 교회
2. 말씀중심으로 사는 교회
3.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박형준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소 및 전화
236 W Cerritos Ave., Anaheim, CA 92805
T. (714)323-1194

베델한인교회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김한요 담임목사

www.bkc.org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말씀여행 오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소 및 전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854-4010, F. (949)854-4018

얼바인 중앙교회

말씀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여, 율법에서 복음으로, 종교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예배 오후 12:30
주일 유치부 오후 12:30
주일 초등부 오후 12:30
주일 중고등부 오후 12:30
목요 모임 오후 7:30
목요 다음세대 말씀반 오후 7:30
주일 가족 모임 오후 3:00
화요 훈변반 오전 10:00

이상대 담임목사

www.irvineju.com

주소 및 전화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823-7177

담임목사 청빙

1974년 11월 24일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설립 된 본 교회는 성도들이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기를 소망하는 그 무엇으로도 포장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는 참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1. 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이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소명, 목회경험, 가족소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DVD, 영상 File)

서류제출 마감일 : 2017년 1월 15일(주) 소인 까지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
(Attn : 청빙위원회) 3350 Adie Rd. St., Ann, MO 63074
E-mail : stlfirstch@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상기 주소로 일반 메일과 이메일로만 접수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http://www.stlfkpc.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재미 남가주 황해도 도민회

The Association of Hwang Hai Do Province Residence in Southern California U.S.A
981 S.Western Ave. #300A, Los Angeles, CA 90006
Tel:213-705-0404 Fax:323-870-5522 E-mail: ojh5555@gmail.com

招請狀

새해를 맞이하여 黃海道民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家庭과 經營하시는 事業 위에 하나님의 크신 恩寵과 祝福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7년도 會長團 就任式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公私간 바쁘시겠지만 夫婦同伴으로 參席하시어
祝賀와 激勵를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17년 1월 11일 오전 11:00
장소: 나성동산교회 (213-487-3920)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在美 南 加州 黃海道 道民會
會長 吳 鎭 亨

●김인수 교수의 한국 교회사

교회의 사회개혁 활동(V)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초기 한국교회의 사회개혁 활동 중 노동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 있다. 한국인들의 또 다른 구습 가운데 하나는 노동을 천시하는 것이었다.

초기 천주교회가 한국에서 전교활동을 할 때 한국인 신부 최양업(崔良業)은 " [양반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일을 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횡령과 사기와 착취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도박과 주정과 방탕에 빠져 있습니다."라며 유교 전통사회가 지닌 노동경시 풍조를 지적했다.

유교적 전통에서 노동은 상놈들이나 노비들이 하는 일이고 양반들은 글이나 읽고 시나 짓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던 사회에서 기독교는 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과감하게 노동의 신성을 역설했다.

이런 노동천시 사상은 결국 한국인들을 나태하게 만들어 한국을 둘러본 한 일본인이 돌아가 쓴 글에 한국인의 특징은 태만이라 쓴 것이 있다.

노동의 신성을 일깨우기 위한 일 문답이라는 계몽적 기사가 있다. 일 문답: 문 : 대한 풍속에 일하는 것이 좋은 거시뇨, 됴치 아니한 거시뇨? 답 : 됴치 안케 녁이는 거시니라. 문 : 엇지하여 그러한 줄 아느뇨? 답 : 사람이 서로 맛나 인사할 제 무엇하시오 하면 대답이 별노 하는 일 업다고 하나니 이거슨 행셰하는 사람의 의례 하는 말이어니와 셔양 풍속은 그러치 아니하야 만일 아모 일도 업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크게 한심스러운 사람이 되나니라. 문 : 일하는 것을 됴치 못하게 녁이는 표가 또 잇나뇨? 답 : 잇나니 나즌 사람을 가라쳐 일군이라 하고… 문 : 일이 어찌하여 사람에게 요긴하뇨? 답 : 몸에 힘도 나고 재물도 나고 정신도 나느니라. 문 : 엇더한 사람을 택하야 일을 가라치는 것이 올흐뇨? 답 : 왕의 아들브터 나즌 사람의 아들까지 가라칠지니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권고를 「대한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문: 셩하야 가는 나라도 잇고 쇠하야 가는 나라도 잇나니 엇짐이뇨. 답: 셩하야 가는 나라흔 백셩들이 일심으로 부지런히 일하는데 잇다하나, 그러나 그 즁에 또 생각하고 알거시 잇나니 백셩들이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야 겨우 살아가는 동 안에 나라흔 부지중 성하야 가나니라." 부지런히 일하는 나라가 발전한다는 경계의 말이다.

교회는 노동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종종 인용하며 노동의 신성과 근면을 강조했다.

초기 교회 지도자 윤치호는 민족의 살 길은 산업의 장려와 노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전환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한국 선교에 관심이 많아 적지 않은 돈을 기탁한 미국 에모리대학 총장이었던 캔들러(W.Candler)에게 쓰기를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학교를 세우기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실업학교여야 합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구원의 진리를 통하여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 한국의 미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라는 것 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덕을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의 의무들 가운데 하나'이고, 기독교 실업대학은 '자립하는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자립의 수단도 제공'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각 선교부가 세우는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업 교육을 중시하여 병행하였다. 북감리교회가 세운 배재학당에는 "매우 번성한 실업과가 있었다. 3개 국어를 인쇄하는 인쇄소와 제본소를 갖추고 있었는데 둘 다 완전 고용 상태였다."고 기록했다. 삼문출판사(三文出版社)를 두고 한 말이었다. 영국 성공회도 인쇄소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작업을 시키고, 기술을 가르치고, 상업과 실업훈련을 실시했다.

남장로교회 구역의 소년학교에서도 실업교육에 치중하였는데, 기계농업(truck farming), 가마니 짜기, 벽지 바르기, 잔디 깎기, 샘 파기, 도로와 다리 수축하기, 철조망 울타리 치기, 목재 제재, 주물 등의 기술을 가르쳤다. 또한 소녀학교에서는 뜨개질하기, 단추달기, 자수, 레이스(lace) 뜨기 등의 기술 교육을 시켰다. 전남 순천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 밴스(Mrs. Vance) 부인은 그 곳 (매산)여학교 학생들이 만든 종이 인형 5만6천개를 미국에 팔아 적지 않은 수익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평양의 안나 데이비스(Anna Davis) 실업과, 서울 웰즈(John D.Wells 후에 경신학교) 실업과, 송도고등보통학교의 직물과, YMCA 실업학교, 독일 베네디트 선교단의 실업학교 등이 있었다.

부한 나라는 온 국민이 근검, 절약하여 부를 축적해서 그 자본으로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받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차차 나은 삶으로 나아간 사실을 역사는 증언한다.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며 놀기만 좋아하는 나라는 어김없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낙후된 생활을 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굶주리며 고난의 삶을 산 것은 전적으로 노동을 천시해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민족성에 그 원인이 있었다. 초기 기독교 선교가 남긴 업적 중 하나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근면의 정신을 진작케 하여 열심히 일하고 근면한 삶으로 나가게 한 것이다.

최고의 보물찾기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유리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인 주몽의 아들이다. 주몽이 부여라는 나라에서 도망할 때, 그의 부인 예씨는 임신 중에 있었다. 주몽은 자신이 가진 칼을 분질러 일곱 모난 돌 위 일곱 모난 소나무 아래에 감추었고, 뱃속의 아기의 이름을 "유리"라 짓고 그 부러진 칼을 찾아서 자신에게 오라 부탁하였다.

예씨 부인은 유리가 소년이 되자 비로소 "네 아버지는 남쪽 나라 고구려의 왕이라"한다. "네가 아버지를 찾아가려면 아버지가 일곱 모난 소나무 밑에 숨긴 보물을 찾으라"고 말한다. 유리에게 그 칼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 어디 있겠는가? 어느 날 그는 자기 집 기둥이 일곱 모가 난 것과 주춧돌이 일곱 모인 것을 발견한다. 그는 부러진 단검을 찾아 어머니 예씨 부인과 함께 주몽을 만나서 고구려의 제 2대 유리왕이 된다.

유리가 왕이 되기 위한 최고의 보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구려의 왕 주몽이 남긴 부러진 단검이다. 성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은 무엇일까? 단연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말씀이 실제로 보물인 것을 자살 직전에 살아남으로 보여준 캘리포니아에 살던 청년 데이빗이 있다. 그는 연달아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결심하였다. 밤 3시에 일어나 식탁을 지나치다가 마침 어머니의 편지를 보았다. 어머니를 생각하다 어머니의 친구 해리엇 부인을 생각했다.

해리엇 부인은 '약속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 구절을 넣었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하나씩 꺼내어 읽어주었던 사람이다. 어머니 친구 해리엇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와 하소연을 한 뒤, 15년 전에 있었던 약속상자가 아직도 있는가 물었다. '있다'고 대답하는 부인에게 부탁을 했다. "저를 위하여 말씀을 읽어주세요." 첫 번째 꺼내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이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한 구절을 더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해리엇 부인이 무심코 꺼낸 말씀은 시편 37편 5절이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말씀을 들은 데이빗은 한참을 울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계획한 자살을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만 더 주세요." 해리엇 부인은 다시 한 구절을 꺼내어 읽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모든 창조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요,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유리왕자의 부러진 단검이요, 캘리포니아 청년 데이빗의 인생을 바꾸는 약속상자이다. 그리고 2017년의 문을 열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정운길 칼럼(9)

유머와 위트의 지혜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관계가 악화되어 위기로 치닫기도 한다. 이럴 때 유머나 적절한 위트를 사용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링컨 대통령은 가히 유머에 달인이라고 할 만하다. 그 일화를 소개한다. 링컨이 상원의원에 입후보하여 더글러스 후보와 경합할 때의 실화이다. 두 사람이 합동연설을 하는 날 더글러스는 링컨의 경력을 문제 삼아 그를 폄하했다.

"링컨 후보는 그가 경영하던 상점에서 팔아서는 안 될 술을 팔았다. 이것은 분명 불법이며 그런 사람을 상원의원에 당선시키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링컨은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더글러스 후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상점을 경영하던 당시 더글러스 후보는 저의 가게에서 가장 술을 많이 사 먹은 최고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사실은 저는 이미 술파는 계산대를 떠난 지가 오래 되었지만 더글러스 후보는 여전히 그 상점의 충실한 고객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중들은 링컨의 말에 큰 소리로 열광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더글러스는 신속하게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 링컨을 공격하기 시작 했다.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고 응수한다. "더글러스 후보가 저를 두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제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또 다시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처럼 링컨은 상대의 공격에 당황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유머 섞인 재치 있는 답변으로 청중들을 압도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되받아쳐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유머와 재치의 명사였다. 유머는 세상이라는 거치른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다. 금년에도 유머와 위트로 행복한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JESUS HEALING MINISTRY

제 22차 /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JHM 영성 컨퍼런스

간증사례

유○○사모/ LA
저는 두 번의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암이 재발되어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직장의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채 봉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3개월에 한 번씩 MRI, CT Scan, 피검사 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 캘빈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바로 그 날, 잠을 자는데 어떤 큰 손이 나의 직장과 대장을 밖으로 꺼내어 물로 깨끗히 씻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문의로부터 나는 더 이상 암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매년의 정기 검진이 필요 없다고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 받음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평생 JHM 사역을 도와서 나와 같이 불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미선 자매/ 사랑의 교회. 서울 서초구
오랜 믿음생활에도 저의 신앙은 겉돌았으며 게다가 결혼 9년차 임에도 아이가 없었고, 시험관 아기를 세 번째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져서 저는 이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때 여 캘빈 목사님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은 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방언통변을 통해 제 영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시험관 아기를 4번째로 다시 시도하고픈 마음이 들어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은 임신 19주째의 건강한 딸 아이가 제 속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캘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집사/ 대학교회. 서울
저는 원인 모를 어지럼병으로 몇 년 동안 누워서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오랜 시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무당의 악한 영으로부터 짓눌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축사를 통해 악한 영이 쫓겨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있는 신앙 생활 했음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저에게 목사님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제는 말씀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안개가 걷히는 것같이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 캘빈 목사님의 성령 사역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김○○목사/ LA 사역자
저는 지난 5년여 동안 아주 심한 변비로 인해 배는 임신 10개월처럼 나와 있었고 늘 고통을 받아왔었는데 지난 11월 19일에 캘빈 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완전 치유를 받게 되어 지금은 이전과 같은 변비로 인한 고통없이 지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캘빈 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영성 컨퍼런스에서도 크신 역사와 치유 그리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임동언 집사/ 서울. 4차~16차 집회 참석자
저는 본래 무신론자로서 살다가 예상치 못했던 사업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몸까지 아파서 자살까지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을 만나 상담하고 JHM 영성 집회를 꾸준히 참석한 결과 지금은 건강과 일 그리고 제정문제까지도 회복되었으며, 나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LA서 열리는 영성 집회에 꼭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 캘빈 목사님이 잘 도와드릴 겁니다.

데니얼 아빠/ 집사. 서울
50대 중반의 사업가로서 저는 사업상 여러 번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믿음 생활은 항상 겉돌았고 사업은 내 머리와 힘으로만 했기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저를 위한 예언사역을 통해 신앙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해 오던 삶의 우선 순위가 어느덧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지금은 사업이 미국, 중국, 동남아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JHM의 곡간을 채워서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세계의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돕고자하는 목사님의 비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며, 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사업하며 고생하는 사업가들을 이 사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를 제정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드보라 김 사모/ LA 사역자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여 캘빈 목사님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항상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전에 제가 많이 지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때 5살 아이로 보이는 제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 옆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온 가정이 불교에 심취해 있던 때였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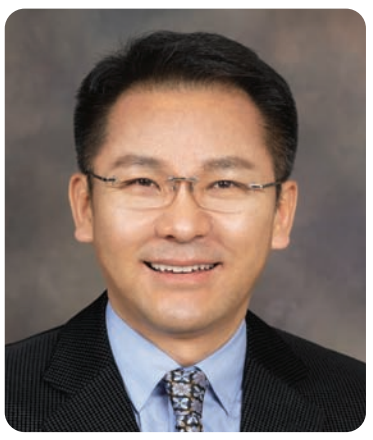
권세능 목사/ 주천성교회 담임. 경기도 평택
올해 8월 여 캘빈 목사님 초청 영성 부흥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그 어느 집회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오랫동안 사모했으나 받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한 세밀하고 정확한 방언통변을 통해서 성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집회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목회를 중단하려 했던 저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성 사역자가 여 캘빈 목사처럼 지적이면서도 성경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은사를 성경적으로 균형있게 잘 활용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성 사역자로 귀하게 쓰시는 신실한 종입니다.

이상목 목사/ 이어리한인교회 담임목사
저희 교회에서의 두 번에 걸친 부흥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오랜 영적인 문제가 해결 받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 캘빈 목사님은 말씀과 영성을 균형있게 겸비한 사역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 즉 방언통변, 예언, 축사 사역은 아주 탁월합니다.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므로 JHM 영성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1-2]

주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파워 크리스챤으로의 회복"



주강사 여 캘빈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소속
- 내적치유 사역자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변)
- 영성집회 인도자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서남아 등)
- Kunsan National Univ.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A
- Miju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M.Div
- Criswell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Dallas, TX>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 Grace Theological Seminary MA <Indiana, OH>
- Grace Theological Seminary Dr. of Missiology Candidate <Indiana, OH>

할렐루야!!

제 22차 'JHM 영성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열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 온 지난 21차에 걸친 'JHM'을 통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해 은혜의 회복과 은사를 경험한 후 변화되어 각자의 지역 교회에서 신실한 일군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나 온 JH Ministry를 통해 말기 위암 환자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옛 자아, 죄 그리고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제 22차 'JHM 영성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박 4일 동안 본 집회에서는 성경적인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변 등의 은사들을 정확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의 성도에게는 자유함을,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017년 새해에 JHM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십시오.

- 컨퍼런스 일시 : 2017년 1월 22일(주일, 4 pm) ~ 1월 25일(수, 4 pm) 까지 3일간
- 장소 : 빅베어 Pine Crest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주소 : 1140 Pine Crest Road. Twin Peaks, CA 92391
- 접수 마감일 : 2017년 1월 17일
- 참가비 : 250불
- 준비물 : 성경, 세면도구

JHM 초청대상

- 육체적인 질병과 씨름하며 고통중에 있는 분
-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지로 절제할 수 없는 각종 중독(마약, 술, 도박, 음란) 등으로 고민하는 분
- 복잡한 문제에 얽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분
- 영적 세계에 눈은 열렸지만(예언, 영분별 등) 분간이 잘 되지않아 짓눌려 있거나 궁금한 분
-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분
- 방언을 하지만 확신이 없거나 방언은사를 사모하는 분
- 진정한 영적싸움과 그 승리의 원리를 알기 원하는 분
-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성경적인 돌파구를 찾기 원하는 분
-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자아문제와 신앙성장 문제에 걸려 고민하는 분

JESUS HEALING MINISTRY | 주소: P.O. Box 74069, Los Angeles, CA 90004 문의전화: 213.806.9990

진중세례식 4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5월 19일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9,519명에게 세례를 동시에 주었다.

청년전도의 요람이자 심장, 연합의 실천현장

육군훈련소, 7일 제500차 진중세례식…24년간 최소 153만 명에 세례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이 오는 1월 7일 제500차를 맞이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공식적으로 육군훈련소에서 1차 진중세례가 진행된 1992년 10월 24일부터 지난 2016년 12월 17일 499차 세례식까지 총 153만7,017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육군 진중세례운동의 역사는 평탄치만은 않았다. 무엇보다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은 전군으로 진중세례식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는데, 1970년대 초부터 일어난 1차 진중세례운동으로 많은 장병이 군에서 직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군대 내에서 종교를 강조하지 말라는 지침으로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신자도 매회 평균 1~2백여 명으로 수가 크게 줄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 1989년 10월 육군교육사 사령관으로 김진영 장로(전 육군참모총장,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장)가 부임한 후 2차 진중세례운동을 일으켜 매회 5백~1천여 명까지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신자가 늘어났다.

이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사역이 이관되어 1992년 10월 24일 1차 진중세례(영락교회 후원)부터 공식집계를 시작했으며, 이날 총 3,289명이 세례를 받았다. 동시에 가장 많은 장병이 진중세례를 받았던 때는 2012년 5월 19일로, 9,519명이 세례를 받아 한국 기네스북에 올랐다.

또한, 작년에는 최초로 8만 명을 넘어선 8만1,657명이 육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도 매월 1~2회씩 열리는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예식은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을 비롯한 교회, 단체들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장합동총회가 총 34회로 공식집계 최다 후원 교단이고,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총 25회로 최장 후원기관이다. 특히 열린선교회는 후원자 선정이 가장 어려운 매년 1월 첫 번째 세례식을 2000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6년째 섬겨왔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에 대해 "한국교회 청년전도의 요람이자 심장이며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실천현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 총회의 공식 후원사역으로 육·해·공군·해병대 등 전군으로의 전도 세례운동 확산의 진원지이며 민·군 연합의 청년전도사역을 실천하고 청년전도와 양육, 지역교회결연 중심의 비전2020실천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 14시 30분 세례식에 앞서 드리는 감사예배에는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과 한국군종목사단, KMCF,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후원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2시 30분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 현장 견학 및 기도회가 열리며, 13시부터 선교관 2층 중예배실에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지희 기자

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회개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2017년 총회장 신년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우리 교단 모든 성도들과 노회와 교회, 그리고 한민족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새로울 것 없는 분위기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조류독감의 확산으로 인한 불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난민들, 동북아시아 주변 정세의 요동, 경제문제와 빈부격차의 심화 등, 쉽지 않은 문제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은 개혁전통을 잇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것은 루터, 칼뱅, 츠빙글리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5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은 우리에게 '개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개혁되지 않는 고인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은 우리 스스로부터 개혁하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입은 거룩한 백성의 모임입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몰아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의 본성인 거룩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어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선교는 예배의 감격을 나누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전도와 다음세대를 예배자로 기르는 교회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자신을 개혁하여 믿음대로 사는 생활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101회기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회기입니다.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한국교회는 개혁정신에 충실한 적극적인 신앙공동체였습니다. 전인구 중 기독교인이 1.3%에 불과했지만 민족대표 33인 중 16명, 투옥된 9,458명중 2,087명(22%)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는 민족을 이끌어 가는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100년을 맞아야 합니다. 민족 통일과 평화 속의 번영을 향한 희망을 주는 민족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하는 성도로,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부름에 충실히 응답하는 총회와 노회, 교회가 되는 201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차별금지법과 비슷"

한국교회언론회…사실상 차별금지법 인정 법안 논평

한국교회언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끌어들이려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남녀고용 평등에 대해 그 대상을 '남녀'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성별'로 함으로써,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다양한 성의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차별금지법을 끌어들이려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의 실체는?** 현재 국회에는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14일 대표 발의(이하 9명이 동참)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의안번호 4384-이하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원래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일부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남녀'란 말에 '성별, 임신 여부, 자녀출산 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신고나 상담,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처벌조항에서도 '남녀' 대신 '성별, 임신 여부, 자녀출산계획 등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라고 한다.

이 일부 개정안의 특색을 찾아보면, 첫째는 차별금지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녀고용 평등에서 그 대상이 '남녀'면 되는데, 이를 굳이 '성별'로 함으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의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에는 차별금지법을 모방한 입법 발의가 주로 야당 쪽 의원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것이다(김정재 이철우 조훈현 정병국 강석호 김도읍 곽대훈 정용기 김성원 박명재 의원).최근 새누리당이 정신없이 분당과 파당을 겪는 사이에, 여당 의원들까지도 개념 없이 차별금지법을 차용하려는 것이다. →

→세 번째는 이 일부개정안이 동성애를 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나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데, 옥상옥(屋上屋)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은 남녀차별 금지를 빙자한 차별금지법 차용의 잘못된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는 법률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조차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몰이해하고 있는 데서 빚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의견 개진만이 이러한 빗나간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대웅 기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지난해 미얀마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 '러브조이피스페스티벌'에 참석해 설교 중이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페이스북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개신교 대표들

프랭클린 그래함, 폴라 화이트,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초청 받아

오는 20일 열릴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프랭클린 그래함(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대표) 목사, 폴라 화이트(플로리다 뉴데스티니센터) 목사, 사무엘 로드리게스(전미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콘퍼런스 회장) 목사가 개신교 대표로 참석한다. 이들을 포함해 가톨릭과 유대교 출신의 종교 인사 총 6명이 초청됐다.

세계적인 복음전도자인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미국 대선 기간 전국적으로 '디시전 아메리카'(Decision America) 캠페인을 벌이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프랭클린의 기도 캠페인이 당선이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도 했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2001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도 축도를 맡았다.

TV 복음전도자로 유명한 폴라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를 전도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개신대규모 히스패닉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인 전미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콘퍼런스 회장인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는 취임식 참석에 대해 "신성한 의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오바마 대통령 이 취임식에서는 루이 기글리오 목사를 대신해 친동성애자인 루이스 레옹 미국성공회 신부가 축도를 맡았었다. 레옹 신부는 백악관 근처에 있는 미국성공회 교회인 세인트존교회 소속으로 오바마 대통령 가족이 자주 출석하는 교회 중 하나였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이·취임식 준비위원회는 루이 기글리오 목사를 선정했다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인물을 축도자로 세워서는 안된다'는 친동성애자들의 반발로 이를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

강혜진 기자

트럼프, '동성애 반대' 연방대법관 임명?

'강경' 보수 성향의 후보들 물색 중

연방대법관 후보로 '보수성향'의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적으로 더 강경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후보감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7일 美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연방대법관 지명자로 앨마배마주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윌리엄 프라이어(54)와 위스콘신주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다이앤 사이크스(59)가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프라이어 판사는 낙태나 동성애와 관련된 연방대법원 판결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인물이다. 사이크스 판사는 총기소지 권리를 강조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관련 사안을 판결할 때마다 거의 매번 제시해왔고, 주 정부가 대학 내에 동성애 반대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두 명 이외에도 미시간주 레이먼드 케슬레지 연방항소법원 판사, 펜실베이니아주 토머스 하디먼 연방항소법원 판사, 미주리주 레이먼드 그루엔더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현재 1명이 공석인 채 운영되고 있다.

팀 켈러 목사의 '성령 잉태와 부활'에 대한 인식

'부활' 받아들일 수 없다면…경계선 밖에 있는 것

팀 켈러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최근 뉴욕타임즈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olas Kristof) 칼럼니스트가 작가로 활동 중인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의 티모시 켈러(Timothy Keller) 목사와 기독교적인 내용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담은 크리스토프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에 관해 질문하고, 팀 켈러 목사가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크리스토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팀 켈러 목사는 "무언가 몸과 마음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할 경우,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종교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존재할 수 없다. 만약 내가 그린피스(국제 환경보호단체) 이사회 소속이면서 외부에 나가 '기후 변화는 가짜였다'고 말한다면, 사임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크리스토프는 "예수의 삶의 초기와 관련해 마태복음이나 갈라디아서에는 성령 잉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누가복음의 경우, 성령 잉태와 관련된 내용이 종류가 다른 그리스어로 기록돼 있으며, 아마 나중에 추가된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켈러 목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은 아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을 살핀 프랑스 철학자 뤼크 페리는 '복음서는 전 우주를 이끄는 힘이 비인격적인 우주적 원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실질적 인격이었음을 가르쳐준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세 번째로 크리스토프는 "부활을 반드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켈러 목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역의 요점이 아니었다. 그분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중요한 윤리적 가르침은 이같은 역사적 교리와 함께 볼 때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부활이 진짜 실체라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온유한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마 5:5)이라고 하신 말씀과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소용이 없다'고 하신 말씀(고전 15:19)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프는 "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 이후 그분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나처럼 부활을 의심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인가? 세속적인 기독교인인가? 부활을 의심하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켈러 목사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당신이 부활을 비롯해 사도신경에 나타난 기본적인 신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신은 경계선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Pixabay

힌두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존경심 담아…아기 예수님께 헌사

힌두교를 믿다 기독교인이 된 45,000여 명이 동료 기독교인들에 대한 존경심과 일치의 정신을 담아 인도 오리사주 부바네스와르(Bhubaneshwar)의 아기 예수님께 헌사했다.

인도 오리사주는 지난 2008년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던 곳으로 이들의 행위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었다.

오리사주 성빈센트 성당의 프라사나 프라단(Prasanna Pradhan) 신부는 "오리사주 사람들은 실제로 불화와 분열의 어둠을 없앨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년 전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살해됐으나, 이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장엄함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했다고 믿는다. 기독교가 타 종교인들에게 더 잘 알려지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여름, 오리사주 힌두인들은 약 100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300개 이상의 교회와 다른 예배당을 파괴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당시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바네스와르의 요한 바르와 대주교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움과 보호를 제공해준 주 정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별히 칸드하말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中, 성경공부 모임 조직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군중 모아 공공질서 어지럽혔다는 이유로…기독교 여성 처벌

중국의 한 기독교 여성이 성경공부 모임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군중을 모아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단체인 '차이나애드'(China Aid)는 1일(현지시간) 마 후이차오(Ma Huichao)라는 이름의 여성이 다른 4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정부의 허락없이 성경공부 모임을 조직한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무죄를 호소할 수조차 없었고, 그녀는 지난해 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현재 무허가 지하교회를 비롯해 기독교 모임에 대한 압수 수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동안 수 백명의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종교행위에 관한 규제법 개정안(The Revised Draft of 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s)은 사람들을 조직해 종교적인 훈련, 콘퍼런스, 해외 활동 등에 참석시키는 행위, 설교·종교활동 조직·종교 단체 설립·학교 내 종교 장소 설치 행위, 인터넷을 통한 종교 예배 제공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교회 지붕 위 십자가도 건물 규정 위반으로 철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 단체들은 "건물 규정 위반이 아니라, 정부가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을 억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조우라는 이름의 목회자는 차이나애드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하길 원한다. 심지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이 개정법은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은 중국내 종교 통제가 느슨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종교 통제의 약화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사악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로 고소됐으나 일부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차이나애드는 "체포된 사람들의 정확한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석방됐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유럽의 반기독교화, 무슬림 탓하기 전에

기독교적 정체성 유지 위한 책임 다해야

한 가톨릭교회 지도자가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책임을 무슬림들에게 돌리지 말라"면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교회를 채우기 위해 열심을 다하라"고 충고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71세의 크리스토퍼 쇤보른 주교는 오스트리아 유력 일간지 'Kronen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이 유럽을 지배할 것인가?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를 잃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쇤보른 주교는 "모스크에는 사람이 늘고, 교회에는 사람이 줄어가는 것을 볼 때, 무슬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유럽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중동 지역이 과거와 같이 다시 기독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기독교가 내 개인의 종교일 뿐 아니라, 과거에 나타난 많은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선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또 성스테반 성당이 성스테반 모스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곳이 단순히 유명한 여행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 기도의 장소으로 남아있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비엔나에 200개의 모스크가 있으며, 스페인 성당, 다마스쿠스의 세례요한 성당에도 모스크가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과거 모스크였다 힌두교 성전으로 바뀐 곳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종교들은 오랜 시간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 무슬림이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쇤보른 주교는 그러면서 "만약 유럽의 반기독교화(de-Christianised)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무슬림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럽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유럽의 이슬람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네델란드의 교회가 수퍼마켓으로 바뀌고, 우리에게 수퍼마켓이 유럽의 기독교적 뿌리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유럽의 반기독교화에 대해 놀라선 안 된다. 이는 무슬림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유럽의 응집력이 몇 세기 전부터 나타난 적대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브라질 예수상이 리우데자네이루 시내를 굽어보고 있다.

브라질, 가톨릭 인구 약 9백만 명 감소

사제도 부족…진보신학자 '결혼한 사제들 사역지로 돌아오게 해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예수상으로 유명하다. 브라질은 가톨릭 인구가 많은 국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그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여론조사 기관인 다타폴랴(Datafolha)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브라질의 가톨릭 인구는 약 90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세 이상 브라질 전체 인구의 6%에 해당되는 수치다. 반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6%에서 14%로 2배 이상 늘었다.

포브스는 "가톨릭 인구의 감소는 브라질의 가톨릭 교세 확장에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가톨릭 인구가 줄면, 사제의 주례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가톨릭 세례를 받는 신생아의 수도 줄어들게 된다. 가톨릭교회는 가톨릭 사제의 주례로 결혼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브라질 가톨릭교회는 결혼한 사제들을 받아들일 전망이라고 내셔널가톨릭리포터가 전했다.

진보적인 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 박사는 작년 12월 25일 독일의 일간지 'Kölner Stadt-Anzeiger'와의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결혼한 사제들이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브라질 주교회의의 특별 요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프 박사는 "브라질 사제들 특히 교황의 가까운 친구이자 브라질 주교회의 대표인 클라우디오 휴미스 추기경은 브라질의 결혼한 사제들이 목회 사역지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했다. 최근 교황이 이 요청을 들어줄 의지가 있다고 들었다. 이는 브라질에 있어서 실험적이고 예비적인 순간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 "브라질은 사제 인구의 극심한 감소에 직면해 있다. 1억 4천만 명의 가톨릭 인구를 돌보기 위해 최소한 10만 명의 사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1,8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재앙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실한 가톨릭 교인들이 개인적인 영적 빈곤 상태를 채우기 위해 복음주의 교회나 오순절 교회로 빠져나가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결혼한 사제들을 다시 사역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팔레스타인 "주이스라엘 美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현재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파타당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할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동미디어연구센터(Middle East Media Research Institute, MEMRI)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의 파타중앙위원회 소속 술탄 아부 알 아이네인(Abu al-Einein)은 1일(현지시간) 이집트 알그하드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어떤 어리석은 행동도 팔레스타인 진영에 불을 붙이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무함마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교만과 미국의 잠재적인 정착 활동이 팔레스타인의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다.

압바스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대립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분명하고 대담하게 이스라엘과의 정착이 합법적이고 적법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관계자는 "워싱턴과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영역 내 유혈사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유엔이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이후 최근 며칠동안 서양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결의안을 반대하지 않은 점에 대해,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이 작년 12월 28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긴 연설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미국의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재차 강조한 점을 비난했다.

그동안 미국은 이스라엘과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두 국가 해법'에 따라 양국 사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다.

작년 12월 도널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에 친이스라엘 강경파인 데이비드 프리드먼을 내정했다.

또 이스라엘 측에 오는 1월 자신의 취임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이스라엘 달래기에 나섰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은 트럼프의 지지와 격려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강혜진 기자

IS, 28명 희생된 바그다드 연쇄 폭발 배후 자처

이슬람국가(IS)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최소 28명을 숨지게 한 2건의 연쇄 폭발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IS는 이날 연계된 이마크 통신을 통해 2명의 IS 대원들이 자살 조끼를 입고, 이번 연쇄 폭발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IS는 이 테러를 '순교 작전'이라고 불렀다. IS가 배후를 자처한 이번 폭발로 바그다드 중부 알시넥 구역의 시장에서 최소 28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괴한이 자동차 부품 가게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인 뒤 또 다른 괴한이 그 뒤를 따랐다.

이 시장은 시아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목격자들은 전했으며, AFP 역시 이 일대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도매 시장이라고 밝혔다.

시장 상인인 아브라힘 모하메드 알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판매하는 카트 근처에 모여 있었는데 폭탄이 터졌다"고 말했다.

이번 폭발은 이라크 정부군이 IS에 대항해 모술 탈환전에 나선 지난 10월 이래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다.

바그다드 중심부에는 신년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 테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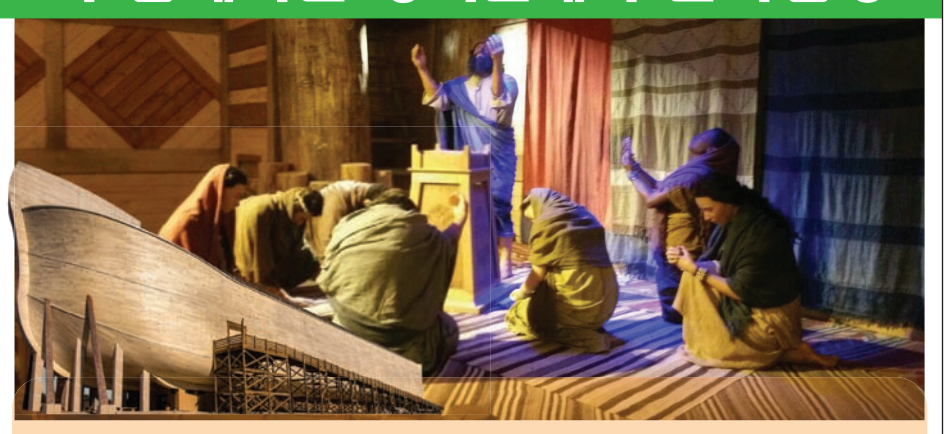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4개국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8일 $2,600 ▶4/24 (항공포함)
▶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그 – 프라이부르그–루쩨른 –취리하–로텐부르크 프라하 – 드레스덴 – 비텐베르크– 라이프치히 – 아이제나흐 – 프랑크푸르트
① 황태자의 첫사랑 하이델베르그 & 칼뱅 종교개혁지 순례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띠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③ 호반의 도시 스위스 루체른 & 츠빙글리 취리히
④ 보헤미안 천년성 체코 프라하와 얀후스 개혁지
⑤ 종교개혁 메카 루터 비텐베르크 & 라이프치히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5일 $999 ▶4/17 (항공포함)
▶ 시카고 – 인디애나 폴리스 – 신시내티 – 인디애나폴리스 – 신시내티
① 시카고 시티 투어 – 밀레니엄 공원 / 시청
② 인디애나 폴리스 주 의사당 외부관람
③ 창조박물관 – 성경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록물을 보관
④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ARK투어 – 실물크기의 노아방주 모형
⑤ 신시내티 내셔널 언더 그라운드 레일로드 프리덤 센터
⑥ 링컨생가 및 뮤지엄 –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의 생가, 뮤지엄
⑦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 (세계최장 동굴) – 켄터키 주에 있는 메머드 동굴

새로운 여행 문화를 창조하는 푸른여행~ 푸른감동~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님께 특별 할인 해 드립니다. – 푸른투어를 방문하시는 모든분께 스파팔래스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① ③ Big Event
1월 부터 3월까지 스페셜 특가로 모십니다!

여행설계사 <데비드 강>과 함께하는
청정 코스타리카 4박5일 $1,399 (항공포함)
– 용암, 분화구 대자연의 경이 – 아레날 화산
– 힐링! 청정 자연을 그대로! ~ 화산용암 온천욕
▶특별출발: 1/23
4박5일 ▶ 1/20, 2/9, 2/14, 2/25 $1,030+항공
5박6일 ▶ 1/16, 1/30, 2/8, 2/13, 2/24 $1,050+항공

치첸이사 / 칸쿤 3박4일 $1,199 (항공포함)
치첸이사 한국인 가이드 동행 / 5성급 옴니호텔 숙박 ▶1/16 2/13

전설의 잉카 페루 5박6일 $2,099
리마쉐라톤 호텔 숙박 ▶ 특별출발 : 1/9,30 2/13,27 3/13,27
항공포함 / 관광, 숙박, 입장료 등 완전 포함 / 마추픽추 / 나스카 지상화

2월~4월까지 스페셜 특별가 쿠바
3박4일 $1,325 부터 (항공포함)
5박6일 $1,520 부터 (항공포함)
▶수시출발
– 4성급 호텔 숙박 – 한국어 가이드 동행
– 하바나 시내(구시가지) – 헤밍웨이 박물관 – 시엔프에고스 시내 – 트리니다드 시내
최소 2명 이상 출발 가능 / 비수기 기준 요금 / 그외 날짜 문의

정열의 중남미
남미의 4대 명소 – 이과수 폭포, 아마존 정글, 공중도시 마추픽추, 신비의 지상화 나스카 라인
정열의 남미 10박11일 $4,699 ▶ 1/13, 1/19
브라질 / 아르헨티나 6박7일 $3,499 ▶ 문의
로스카보스 3박4일 $645 ▶ 문의

특선 1
2차 출발 조슈아 트리 온천여행 $99
1차 온천여행 마감의 성원에 힘입어 2차 온천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서두르세요~
100명 선착순!
1박 2일 ▶1월 19일
①조슈아 트리 별보기 ②카바존 아울렛 ③샌 하신토 케이블카 탑승 ④데저트 핫 스프링스 온천

특선 2
아~ 대한민국 정수라 콘서트 투어
①팜스프링스 시내투어
②카바존 아울렛
③콘서트 관람 (모롱고)
※ 티켓만 구매 가능 ($100/$80/$60)
▶2월 12일 $99

특선 3
알래스카 오로라기차여행 4박 5일
▶출발 : 목요일 $1,300 +항공
– 전세계 유일 '설국열차' 타고 알래스카 횡단 (12시간)
– 페어뱅스 역사박물관, 얼음호텔, 산타마을 등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사진여행"
모나크 나비 축제 / 온천 1박2일
– 피스모비치 / 아빌라 비치
– 샌 시미온 / 온천
▶1월 28일 $199

미 서부, 동부, 캐나다, 한국 모든 여행을 푸른투어 5개 지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미서부

다른회사와 차별화된 미서부 관광
①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② 다럭스 리무진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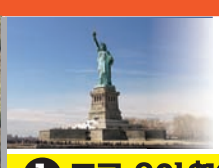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4대 캐년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매주 화 –7일 매주 화 / 토 3대 캐년 + 앤텔로프 캐년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3일 $299
▶ 매주 화 / 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 목 / 금 / 토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푸른LA 일일투어
▶월/수/금 $59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산타모니카 / 웨스트우드 / 로데오거리(차창투어)
베버리 힐 / 선셋 / 헐리웃거리 / 천문대

"9대 캐년 완전정복" 그랜드 써클
6박7일 $829 ▶1/27 2/10, 24 3/10, 24 4/14, 21 5/5, 12, 19

"특급 몬테카를로" 미서부 4대 캐년
3박4일 $389 ▶매주 화 출발
자이언 / 브라이스 / 앤텔로프 /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몬테카를로 호텔숙박
3일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매주 화/토 출발 $29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 화/토 출발 $599
7일 4대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매주 화/토 출발 $689



미동부

① 푸른 유일 $100상당의 3대 옵션 포함 – 타사 비교 요망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시닉터널
② 서부 여행사 유일하게 타사위탁이 아닌 푸른이 직접 행사

푸른투어의 자존심~
명품 IVY 리그
5박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090
7박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160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3명 이상 출발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8일 (미동부 6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6)

벳샨…자유를 꿈꾸는 도시

공원 전경.

사우나탕 외부.

사우나탕 내부.

원형극장.

로마 화장실.

◈벳샨으로 가는 길

여리고에서 라합과 여호수아를 만나고 여리고성의 무너진 잔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엘리샤의 샘물과 삭개오 뽕나무를 본 순례자는 여리고를 나와 90번 도로를 타고 계속 북쪽을 향하여 나아간다.

여리고에서 40분 정도를 진행하면 아담 브릿지가 나온다(고대에 지진으로 인해 이곳에 둑이 막히어 요단강물이 잠시 멈추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 시 이곳에서 물이 막혀 내려오지 못하였지 않나 생각한다.)

이곳을 지나면서 차는 청룡열차를 탄 것처럼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간다.

차창 오른쪽으로는 요단강(푹 꺼져 있어 보이지 않음 벳샨 지나야 요단강을 볼 수 있다)과 너머의 요단계곡의 요르단 경작지와 성경의 길르앗 산지를 바라보며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얍복강을 지나며 계속 북진하게 된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철책선을 바라보다 보면 갑자기 왼쪽으로 아주 멋진 들판이 보인다. 길보아산 앞으로 도착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벳샨의 지경이 된다. 이스라엘 농촌의 풍요로움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이 이곳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비옥한 농토와 스프링 쿨러를 보면서 감탄하다 벳샨 국립공원에 도착하게 된다.

쿰란에서 벳샨까지는 차로 1시간 25분 걸리는 거리인 66.1마일(99.2km)이다.

여리고에서 올라가게 되면 55.9마일(99km)정도의 거리에 있다.

만약 갈릴리 호수 티베리야에서 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25.1마일(40.5km)정도가 되는데, 차로는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나사렛에서 이곳까지는 23.3마일(37.5km) 정도의 거리로 약 35분 정도가 걸린다. 그런가 하면 지중해 하이파로부터 오면 43마일(69.3km)로 약 5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벳샨의 역사

'샨신의 집'이라는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벳샨은 요단강이 동으로 2.49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흐르고 길보아산이 남쪽으로 병풍을 친 듯 펼쳐져 있으며, 요단 동편으로는 우뚝솟은 고원지대의 수려함이 돋보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벳샨은 가나안시대인 기원전 3000년에 하롯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따라 마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기원전 15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이집트의 침입으로 한때는 이집트의 문화와 풍물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으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후 이곳은 이스라엘 므나셋 지파가 차지하고 납달리 지파와는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기원전 1140~1000년 사이 사사기 시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3명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와 더불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 죽게 되고 그들의 시신은 벳샨의 성벽에 못 박힌다.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벳샨으로 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여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칠일을 금식한 것은 왕에 대한 대단한 존경이 아닐 수 없다.(삼상31장)

북이스라엘 왕국시대에 기원전 732년 사마리아의 함락과 더불어 벳샨도 앗시리아의 지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세월은 흐르고 도시의 영화는 꿈결같이 사라져 가는데 이 멸망한 도시를 다시 부흥케 한 세력은 당시의 세계사 흐름을 주도한 헬레니즘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이다.

이 시대에 NYSSA SCYTHOPOLIS라고 불리우던 벳샨은 요단강 주변도시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동맹 중 가장 강성한 세력을 자랑한 벳샨은 주변도시들의 맹주역할을 하며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로마와 이후 시대의 벳샨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의 지배가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서 시작되고 요단강 주변으로 10개의 도시 중 벳샨에는 제우스 주신의 신전이 건설되고 주변도시들을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압박하며 대단한 기념비적 건물들을 건설하였다.

지금의 국립공원 벳샨의 유적들은 대부분 로마시대에 건설된 건물들이다.

기원후 324~632년까지 비잔틴 시대에는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교회들이 들어서게 된다.

632년부터 아랍의 지배를 받게 된 이 도시는 결국 748년 1월 18일 갈릴리 주변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만다.

1099~1187년 사이에 십자군이 벳샨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옛날 북이스라엘 시대의 성터에 성채를 건설하고 이곳을 지나는 대상들이나 순례객들을 보호하는 일에만 치중하게 된다.

벳샨은 1260~1517년 마물룩 이집트 아랍시대를 거쳐 1517~1917년 오토만 터키의 지배를 받게 될 때는 아주 조그만 마을로 전락하게 된다.

◈벳샨의 현대화

20세기에 유대인 정착촌이 주변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벳샨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1948년에 가서야 현대 도시 벳샨이 건설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 벳샨은 아름다운 농촌도시로 농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으며 주변의 배후 농경지에서 과학적 영농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에 프로축구팀까지 있는 갈릴리 주변의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된 것이다. 벳샨 동쪽에는 요르단으로 갈 수 있는 킹후세인 국경이 있어 순례객들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오거나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갈 때 편리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바카스의 신(히랍 신화에 나오는 주(술)신)이 숭배되면서 한때는 문화의 자유를 꿈꾸었던 도시였으며 제우스를 비롯하여 태양신 등이 각축을 벌이며 인간의 자유를 신적 행위로 활개쳤던 도시, 이 도시가 로마유적의 발굴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로마시대의 유적지로 5000명이 들어간다는 원형극장과 대전차경기장공동호장실, 공동 목욕탕, 상하수도시설, 신전지대, 대로는 지금도 그 당시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벳샨의 화려함

국립공원 티켓을 끊고 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라. 벳샨의 역사를 알리는 프라스틱 안내도가 순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안내도를 통해 벳샨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청동으로 된 조형물을 통하여는 벳샨의 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한눈에 들어오는 벳샨의 화려한 로마문명은 방문객들을 시간여행 속으로 안내한다.

원형극장의 돌 의자에 앉아 누군가가 부르는 복음성가도 들어보고 음향시스템의 탁월함에 한번 놀라기도 한다.

그리고 옆문으로 나가 공동화장실로 가보라. 대리석으로 된 변기 모습이 신기롭다. 오물이 나가도록 밑으로 수로시설을 해놓은 것이 특이하다.

화장실에서 나오면 각종 건물들이 눈에 들어 오는데 다 돌아볼 수는 없고 멀리 산을 보라. 구약의 무대이다. 헬라와 로마 이전의 벳샨의 유적은 모두 산 위에 있다.

산 위를 자세히 보면 십자가형을 한 나무가 보이는데 지져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 심어놓은 것이다. 시간상 산 위로는 올라가지 못할 경우, 대로로 나와 기둥들 사이에서 로마의 귀족 흉내를 한번 내보고 바로 사우나탕으로 가보라. 2000년 전에도 저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우나 시설이 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기에 규모나 장식의 화려함은 극에 달할 정도다.

고대인들은 신들에 대한 숭배로 문화와 향락으로 자유를 꿈꾸었다. 지금은 해마다 오순절이 되면 원형극장에 5,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와 이스라엘의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한다.

지형적 특징으로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곳에 그리스도께서도 방문 하셨으리라 본다. 여리고나 사마리아지역을 가시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 복음사역을 위하여 주님이 이곳을 방문하셨으리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물론 신약에는 벳샨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갈릴리 온 동네에 다니셨던 것을 보면(마 4장23절) 이곳은 큰 도시였기에 더 자주 많이 방문하셨으리라 본다.

지금도 벳샨은 예루살렘이나 사해쪽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통과하여야 하는 중요한 도로변에 놓여있다.

오직 예수! 로 말미암은 자유가 참다운 자유가 아닐까? 〈계속〉

서병길 교수
임마누엘대학교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20일~30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중고차 최고가 매입$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전도용품 세일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향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보험 가입&변경기간 10월 15일~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한국의 맛
우리반찬
KOREAN FOOD
THE BEAUTY OF KOREAN FOOD
최고의 기회 NO MSG
웰빙푸드 전문점
선별된 좋은재료, 최고요리 전문가의 정성어린 손길로 모십니다.
품격있는 캐더링
웨딩 캐더링
교회 행사 캐더링
돌잔치 캐더링
회갑잔치 캐더링
생일상 캐더링
- 스페셜 다이어트 푸드
- 자연의 맛 그대로 조리된 각종 반찬
- 전통 찜요리 (궁중찜, 갈비찜, 코다리찜, 조기찜, 묵은지 등갈비찜)
- 웰빙 김밥
- 김치류
연말 연시 캐더링 주문 환영
Tel(213)388-0022
356 S. Western Ave. #106, Los Angeles, CA 90020
찾아오시는 길 Western Ave 4Th

‘중국’ 대상으로 선교하는 자세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선교의 자원으로 활용할지…연구와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몇 달 전 스마트폰에 위챗(WeChat, 微信)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필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운로드 횟수였는데 1억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제까지 앱을 다운로드하면서 처음 본 ‘억’이라는 숫자에 놀랐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 혹시나 하고 다시 들어가 보았더니 여전히 1억이라는 숫자는 변화가 없었다. 아마 스마트폰이 그 이상을 표기할 수 없어서 일수도 있다. 그 아래 설명을 보니 8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메시징앱이라고 되어 있었다.

뉴스에서 2016년 12월 29일 기준, 일일 사용자 수가 7억 6천8백만 명. 상대적으로 카카오톡은 일일 사용자 수가 4천2백만 명이라고 하니 중국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알게 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를 맺으면서 한국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조심스럽게 중국에 들어가던 때로부터 25년이 흐르는 동안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거리에 달구지가 지나가고 노란 ‘빵차(面包车)’가 택시인 시대가 아니다. 경제 규모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세계가 인정하는 주요 2개국 G2(미국, 중국)가 되었다.

이런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하는 소리도 들린다. 유럽연합은 영국의 탈퇴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세계가 정치 혼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작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 6중전회에서 시진핑 지도부 집권 1기 5년을 마무리하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공식 언급하며 안정된 정치 환경을 마련하고 굳건한 집권 2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세계는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자세 달라져야

그렇다면 이제 이런 중국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중국 곳곳에서 교회 부흥의 소식을 듣는 것은 실로 큰 기쁨이다.

이제 중국교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닌 중국교회 스스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성장하고 있다. 성숙한 현지인 사역자가 이미 많이 세워졌다. 그동안의 중국선교를 향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열정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 아니, 중국의 문이 닫혀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질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한 중국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인 사역자들이 전국 곳곳의 소수민족지역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인 사역자들이 중국 주변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기도 하다.

작년 9월 중국 전역의 가정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참여한 제2회 ‘선교중국2030’ 대회가 베이징 지역가정교회연합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1,000여 명이 넘는 중국인이 참석하였고, 중국가정교회가 새롭게 제시한 선교비전은 중국교회가 2030년까지 2만여 명의 타문화권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한다는 것이다. 25년 전에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릴 때 한국선교사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한 동반자가 되었다.

한국은 중국이 세계선교의 큰 동력이 되는데 여전히 중요한 동반자이다. 현재 한국에 중국인 유학생이 6만여 명이다. 10만 6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유학생 중 중국학생이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에 유학을 간 한국학생의 숫자도 6만 6천여 명이다. 총 22만 명의 한국학생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유학국가가 되었다. 유학을 통한 젊은이들의 인적 교류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문뿐 아니라 문화 등 다양한 학습을 하게 되고 젊은 시절의 경험이 양국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웹진 ‘중국을주께로’ 9월호 기획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세계관에 관한 연구’서 중국 젊은 세대의 특징인 바링허우(80后)와 지우링허우(90后) 세대에 대한 연구를 실은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10년 전 한국에 유학 온 중국학생들이 바링허우 세대였다면 최근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지우링허우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여 선교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달 전에 중국 내륙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한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젊은이가 한국에 유학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한국에 감사하다며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중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중국어문선교회

이는 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확인해 준다. 한국이 중국과 경제뿐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도 동반자가 되어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선교사들과 중국선교단체가 힘써야 할 일은 국내에 있는 중국선교사 출신 사역자들이 국내에서 중국인유학생을 전도, 양육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들을 중국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유학생 사역, 중국 현지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중국 전역에 사역자로 파송하는 사역, 특히 여전히 미전도종족으로 남아있는 소수민족지역으로 파송하는 사역이다.

더 나아가 중국 주변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 중동지역 등 전 세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중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회 사역 등을 위해 중국선교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의 시대, 제주도에서 열 명이 한 사람의 옷을 잡고 함께

중국어문선교회는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격월간 종이 ‘중국을주께로’를 2014년 9월호부터 월간 웹진으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제주도로 본부를 옮겨 제주도에서 중국 사역을 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선교단체의 본부가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도 가장 먼 제주도로. 변해가는 사역의 상황을 잘 읽고 앞서 나간 행보에 감사한다. 중국어문선교회의 제주도 시대가 2017년에는 더 활짝 열릴 것이다.

스가랴 8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스가랴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구절의 ‘유다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가 점차 중국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70,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전 세계가 놀라며 선교한국시대가 열렸다면 이제 21세기 중국교회의 부흥으로 선교중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올해에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논어의 안연(顔淵)편에는 이런 글이 있다. 제(齊)나라 임금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공자의 대답은 “君君(군군), 臣臣(신신), 父父(부부), 子子(자자)”, 즉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였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당시 춘추전국시대의 혼란한 사회상을 보고 공자가 나라를 고치기 위해 이런 교훈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가을부터 우리나라 정국은 아주 혼란스럽다. 각자 제 역할을 못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물론 그들만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국민도 국민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변화의 시대에 교회는 교회의 역할, 성도는 성도의 역할, 선교사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해야 할 시대의 요구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초대교회를 거치며 제대로 이어가지 않고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한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돌아가자며 시작된 종교개혁은 온갖 박해를 이기며 믿음의 근본을 지켜 왔다.

하지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염려할 정도로 500년 동안의 기독교는 다시 변질되어 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기독교인들로 인해 불의와 잘못에 항거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Protestant’(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현실이 되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개인이든 교회이든 단체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

올해 2017년은 나로부터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중국선교가 개혁되도록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라는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이 변화의 시대에 잘 대응해 가도록 하자.

유은식
전 중국 티베트 선교사

미주 제 63차 성경완독집회
2017년 1월 23일(월)~26일(목)

3박 4일
성경 66권 완독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정화미 선교사

새해, 첫달 성경66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해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 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시다.
성경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숙식 제공
집이 가까운 분은 집에서 왕래 가능

일 시 2017년 1월 23일(월)~26일(목)
장 소 갓스윌연합교회 (담임 :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Tel : 909.983.0994 / Cell : 909.268.4279
주 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참가비 1인당 $70(숙식비 포함), 부부 $100
등 록 1월 23일(월) 당일 오전 9시~10시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개회예배 1월 23일(월) 오전 10:00
수료식 1월 26일(목) 오후 6:00
특 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 :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주최 :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대표:안성기) Tel:(909)983-0994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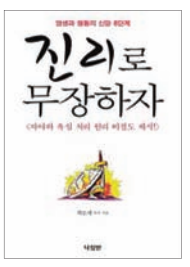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다
박성규 | 두란노 | 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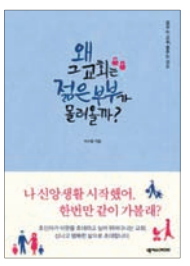
믿음은 삶 전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 곳곳에서 매 순간 치열한 싸움이 이뤄지는 영적 현장이 바로 믿음의 실체인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처해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진리로 무장하자
최모세 | 나침반 | 304쪽



복된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도저히 받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최고의 복인 영생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고 지켜야 할 것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에 그 8가지 원리를 담은 이 책은 온전히 영생의 복을 받는데 있어서 정답만을 기록한 최고의 값진 책이다.

왜 그 교회는 젊은 부부가 몰려올까
이수훈 | 넥서스CROSS | 240쪽



평범한 이들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 책은 복음을 통해 세상에서 지친 이들의 회복을 돕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당진동일교회의 이야기를 담은 책 〈꿈꾸는 교회, 춤추는 하나님〉의 개정판이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이루어나가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도전! 로마서 1000독
조상연 | 규장 | 224쪽

성경의 보석, 로마서를 1000독하면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다. 성경의 한 책을 1000번이나 반복해서 읽는 것은 매우 독특한 성경읽기 방식이다. 반복적인 읽기의 목적은 말씀을 '충전'하는 데 있다. 특히 로마서를 먼저 반복해 읽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업데이트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결론을 꿰뚫어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20세기 신학'의 주요한 움직임을 비평적으로 분석하기

과거의 사상들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해석학적 신학

발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낯선 이름의 주인공은 이 책을 통해 21세기 신학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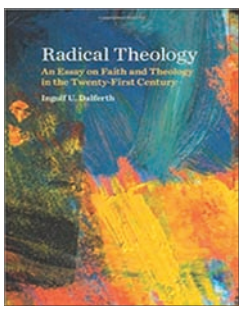
"21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무슨...?"이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제목을 보면 '21세기에 속한 신학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신학을 설명해줄 것 같지만, 저자는 단지 자신의 신학을 21세기의 맥락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담한 제목의 책 자체가 21세기 신학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또한 21세기 신학의 발자취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퍼스(Dalferth)는 신학, 철학, 언어학 모두를 아우르는 학자이다. 뿐만 아니라 튀빙겐, 에딘버러, 비엔나, 캠브리지에서 이 학문들을 습득했기 때문에 국경 또한 초월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저자는 20세기의 철학적 및 신학적 해석학을, 19~20세기의 조직신학과 종교학을 연구했다. 그래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는 취리히 대학의 종교철학 및 해석학 협회(Institute of Hermeneutics and Philosophy of Religion)의 회장 자리를 지내며 같은 대학에서 조직신학, 상징주의, 종교철학 교수로 활동했다.

게다가 학술적인 서적들을 출판하기로 유명한 Mohr Siebeck에서 이 저자의 수많은 책을 출판했다고 한다. 이렇게 대단한 경력을 가진, 1970년대부터 저술을 시작해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써온 저자가 쓴 책이라는 것이다.



Radical Theology
Dalferth, Ingolf U.
Fortress Press

그러면 이 책은 무엇을 다룰까? 이 책은 2010년 'Radikale Theologie'라는 제목으로 독일어로 출판되었던 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이지만, 동시에 많은 수정과 첨가를 포함한다. 어떻게 보면 번역하면서 개정된 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저자는 20세기 개신교 신학 내에서 일어난 중요한 움직임들에 대해 비평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의 문제들을 지나간 과거의 신학에 떠넘겨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상들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는 작업이다. 해석학적 신학(Hermeneutical theology)은 바로 현 시대의 맥락에서 '근원적인(radical)' 방식으로 신학 작업을 한다는 뜻이다.

이 작업을 위해 저자는 먼저 해석학적 신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설명한 뒤, 20세기 해석학이 어떤 경향을 가졌는지 독자에게 알려준다. 그런 다음 다시 인식론적 논의로 돌아가,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적 해석학과 해석학적 신학은 무엇인지 논한다. 그런 뒤 언어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언어를 통해 해석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는 해석학적 신학을 어떻게 비평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해석학적 방법론이란 무엇인지를 고려해 본다. 그런 뒤 해석학적 신학을 자신의 개념인 '근원적인(radical)' 신학으로 설명한다.

[인문고전 읽기]

개인과 사회 위한 '자유'의 의미

소수 의견의 중요성…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누르는 것은 잘못이다

〈자유론(On Liberty, 1859)〉은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저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스튜어트 밀(1806~1873)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 작품은 1854년 하나의 논설로 쓰였으나, 1855년 1월 로마의 카피톨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것을 한 권으로 고쳐 쓰리라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 뒤 두 번이나 써서 밀어 두었다가, 이따금 꺼내서 정정하여 결국 전부를 고쳐 썼다고 한다.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서론'은 예로부터 있던 자유와 권력과의 싸움이 근대 와서는 개인과 대중과의 싸움으로 변해왔다는 것부터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단지 그 자신(개인)에게만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개인은 절대로 대중(다수자)에게 복종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자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사항'은 첫째로 양심의 자유, 사상·감정의 자유, 둘째로 취미와 일의 자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활하는 자유, 셋째로 결사의 자유이다.

제2부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는 이 자유가 진리 발견을 위해 절대 필요하며, 인류의 정신적 행복의 기초임을 말하고 있다. 법률적 형벌에 의하든 세론(世論)에 의하든,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누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먼저 억눌린 의견이 완전한 진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 의견이 완전한 진리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진리는 무한하고 다양한 양상을 가지므로, 다수와 소수는 상호 보조적이다.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산수야 | 336쪽

셋째로 다수의 의견이 완전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생생한 관심은 충돌과 반대에 의해 생겨나게 되는 것이므로 반대 의견이 잘못이라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자는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사상 발표의 자유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부 '행복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은 행동의 자유, 생활의 자유를 말한다. 남에게 관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개인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밀은 자발성 내지 개성이야말로 인류 복지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라고 본다. 따라서 개성의 발달과 표현을 방해하는 사회의 인습과 전통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대 사회의 발달이 이러한 개성 억압의 위기로서 나타나며, 기독교적 자기 부정이 이 경향에 박차를 가했다고 본다.

제4부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는, 인간생활에 있어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과의 상호 관계를 다루고 있다. 개인이 동시에 사회인인 이상, 지켜야 할 일정한 행위가 있다. 즉 개인 상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 또는 그 성원을 위해 부과된 근로 내지 희생을 각자의 몫만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남의 법정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남의 행복에 대해 정당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세론에 의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한다.

〈자유론〉은 나와 다른 의견,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적한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자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 책은 다양성과 개성을 가진 개인이 서로 대립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스리뷰]

'십계명'을 읽으라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은 것인가, 살아있는 것인가?

교회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자주 사용하지만, 십계명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설교도 많지 않다고 본다.

저자 손재익은 십계명을 자기 이해 방식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먼저 16~17세기 개혁파 신앙고백서를 근거한 카테키즘(catechism)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종합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십계명을 모았다(synopsis).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제시된 십계명은 예수께서 완성된 의미를 해석하셨다. 그럼에도 여전히 십계명을 '얽매이는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로 십계명을 제시한다.

저자는 십계명 해설에 있는 모든 단어에 성경구절을 표시해, 신앙고백서가 성경에 입각해 훈련하는 문장임을 나타냈다.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
손재익
디다스코 | 408쪽

이 책에는 당당함과 위트가 있다. "이 책을 집어 읽으십시오(Tolle lege, Pick it up, read it)." 아우구스티누스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었던 음성이, 이 시대에 손재익의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들어서 읽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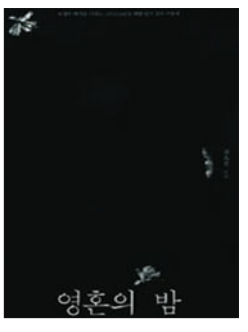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스리뷰]

不在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춰졌던 허물들이 드러나는 시간



영혼의 밤
최호진
홍성사 | 232쪽

3세기 사막 교부들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경험들에 대해,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즉 '영혼의 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절망감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육신들이 나타나고, 감추어졌던 허물들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 일어나고 경험함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다. 자기 자신이 '이 정도로 추악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목격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과 경험들을 하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본 모습을 알고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혼의 밤'은 견딜만한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 모습은 본인 스스로도 매우 낯선 모습이고, 자신 안에 그러한 것들(성품, 기질, 성향 등)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 시간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영혼의 밤'은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하는 기간이다. 숨어 있던 육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시간이다. 그리고 회개의 순간을 맞이한다. 위기는 왜 찾아오는가?

이 책의 저자는 종속적 신앙태도와 성과지향적 신앙태도에 그 원인을 둔다. 종속적 신앙태도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지 않고 목회자의 가르침이나 다른 신앙인들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이 분리된 경우이다. 성과지향적 신앙태도란 목적이나 과업의 성취나 달성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義)를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중요시하기보다 목표와 과업의 달성을 추구하는 사역중심적 신앙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신앙태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점점 교묘히 위장과 포장하게 되고, 잘못된 자기합리화로 스스로를 속이며 부정적인 것들이 더 강화되기도 한다.

현대 교회는 기력(영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흘러 버린 시간으로 인해 이미 자신 안에 있는 부정과 부패, 상처, 고통 등에 대해 돌아볼 수도 손쓸 힘도 없을 만큼 늙어버렸다.

더욱이 영적이란 말이 거북할 정도로 소진돼 버렸다. 이러한 결과는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중심의 신위(神爲)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인위(人爲)적 신앙을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 안의 성도들은 교회가 더 이상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갈망들에 대해 교회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서서히 알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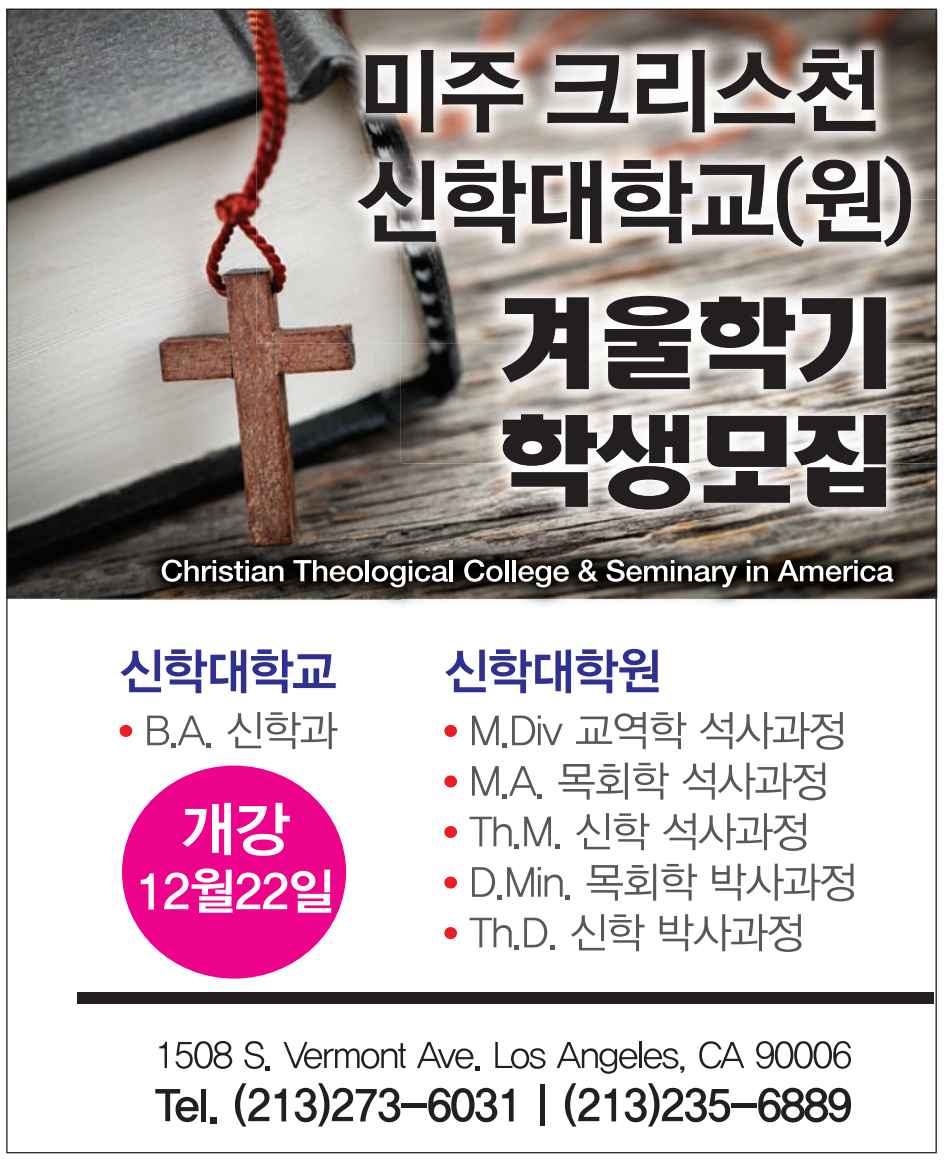
즉 '영혼의 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매우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순간이다.

이 책은 '영성학'적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 '영혼의 밤'의 입장을 견지한다. 마음은 영혼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밤'은 영성학과 심리학의 공조가 필요하다. 3세기 영성학 작품들을 보면 그들이 '심리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 심리학적인 부분을 '영혼의 밤'에서 함께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수많은 신앙(영성)가들이 '영혼의 밤', 즉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시간의 경험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영혼의 밤'을 건강하게 통과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 방식에 대해 '하나님은 부재(不在)인 것 같은 방식으로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밝힌다.

신앙에서의 밤, 현실에서의 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밤, 하나님에 대해 믿음과 확신이 없는 밤에, 이 책을 추천한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January 5, 2017 Vol. 83

United Methodist Church Begins 75 Weeks of Prayer to Decide Stance on Same-Sex Marriage

The United Methodist Church launched a "Praying Our Way Forward" initiative on New Year's Day with 75 weeks of focused prayer before the revision of the Book of Discipline on the topic of human sexuality.

"We share with you a deep commitment to the unity of the church in Christ our Lord ... Our president shared the deep pain we feel. We have all prayed for months and continue to do so. We seek, in this kairos moment, a way forward for profound unity on human sexuality and other matters," said a statement issued by UMC Bishops, addressed to fellow clergy members and laity.

"The aim of 'Praying Our Way Forward' is to ask and listen for God's leadership at this critical time in the life of our church," said Bishop Al Gwinn, who co-chairs the initiative.

In the past, the UMC has received much media attention due to the differences in perspective the denomination's members had regarding same-sex marriage.

The issue was also discussed in the 2016 quadrennial General Conference in Portland in May, but the decision on gay marriage's legitimacy was then subjected to further discussions by specialized committees and panels.

The UMC currently does not formally accept homosexuality and deems it incompatible with the Christian faith. The church bases its position on sexuality from the denomination's Book of Discipline which says that "self-avowed practicing homosexuals are not to be certified as candidates, ordained as ministers, or appointed to serve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denomination had been praying for the last six months as well, and the January initiative is a second phase of prayers which will also have a broader commitment to plead for the restoration of the church and its global mission.

In 2016, some 5,000 people joined a special website (umcprays.org) dedicated to prayers to intercede for the General Conference. Members from around the world offered their spiritual support to the church through this website.

The website, formerly called 60daysofprayer.org, has listed the annual conferences of different regions on a calendar and each conference will intentionally pray for the worldwide UMC mission for one week.

This year's GKYM Conference took place at the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from December 27 to 30.

Hundreds Commit to Mission Work at GKYM Conference in Rochester

About 600 individuals committed to missions at the annual 'GKYM Conference' which took place this year at the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from December 27 to 30. GKYM Conferences have taken place in different cities each year, and the conference last took place in Rochester three years ago in 2013.

Some 2,000 young adults and youth attended the conference, and during the third night (December 29) of the conference, these young people prayed together and signed commitment cards detailing how they will commit themselves to mission work. About 600 committed themselves to short or long-term missions.

Conference speakers included Michael Oh,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Lausanne Movement; Jim-Bob Park, the senior pastor of Oriental Mission Church; Min Chung, the senior pastor of Covenant Fellowship Church; Sung No, the senior pastor of Toronto Milal Church; Jason Noh, the senior pastor of Light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Toronto; and Hae Taik Kim, the co-founder of GKYM International and senior pastor of Choongsyn Reformed Church in New York; among others.

"Before Jesus ascended into heaven, he told his disciples to share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Hae Taik Kim during the last night of the conference. "If we believe in Jesus, before we 'become' missionaries, we already are missionaries."

As around 2,000 to 3,000 young people gather for GKYM Conference each year, some years see as many as 1,000 committing themselves to mission work. The conference has also seen more involvement from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over the years in leading the organization of the event. The staff and speakers during this year's conference saw more 1.5 or second generation leaders than previous years, and most of the conference sessions were in English.

Tens of Thousands of Young People Gather at Georgia Dome for Passion 2017

About 50,000 young people gathered at the Georgia Dome starting Monday for the annual Passion Conference, which focuses on inspiring young people to live for Jesus. The conference concluded on Wednesday.

"Passion exists to see a generation leverage their lives for what matters most," the conference website states.

"To live in such a way that their journey on earth counts for what is most important in the end. For us at Passion, that's the fame of the One who rescues and restores, and the privilege we have to amplify His name in everything we do."

The conference, which first began in 1995, has been geared toward young people from the ages of 18 to 25, but this year, the event's night sessions were opened up to 'alumni' of the conference and adults older than 25. Livestreaming was also made available through the Passion phone app and online.

Louie Giglio, the founder of the Passion Conference, John Piper, Francis Chan, and Christine Caine were among the speakers of this year's conference, and performances by Chris Tomlin, Crowder, Matt Redman, and Hillsong United were also featured during the event. Singer Carrie Underwood also made a surprise appearance during the first night of the conference.

This year's conference also continued the tradition of giving back, as attendees have done over the years. Organizers have encouraged attendees to give financially to The END IT Movement to help combat human trafficking, and to donate new socks and towels to give to those who are homeless.

Passion 2017 took place from January 2 to 4 at the Georgia Dome. (Photo courtesy of Passion Conference)

Woori Church of New York Shares the 'Love of Christmas' in Haiti

A mission team from Woori Church of New York shared the gospel in Haiti from December 27 to January 2.

Woori Church of New York embarked on a mission trip from December 27 to January 2 in Haiti. The church, after starting its Haiti mission trips in 2013, chose the busiest time of the year during the holiday season to go on the mission trip, carrying the love and gifts of Christmas to the Haiti natives.

This year, the mission team comprised of 13 people, and the team participated in relief efforts and evangelism, particularly to orphans. The church prepared gifts for the orphans in Haiti on December 18, and the gifts included letters and a photo of the members of Woori Church.

"The orphans must actually spend the end of the year, which includes the Christmas and New Year holidays, alone," said Won Tae Cho, the senior pastor of Woori Church. "During a time when there are less people visiting these places, we have been planning short term mission trips to share the love of Christmas each year."

Christian Watchdog Group Releases List of Countries with Worst Persecution

A persecution watchdog group released on Wednesday its annual report on the countries in which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is most severe.

Called the 'Hall of Shame' report,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s list of persecutors does not rank the countries in order of severity, like that of another persecution watchdog group called Open Doors USA. Instead, the report categorizes the countries into three groups: worst of the worst countries; core countries; and new and noteworthy.

To note, the United States was included in the Hall of Shame report for the first time, listed under the 'new and noteworthy' countries.

"We felt it was important this year that we highlight three countries where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are deemed unusual but have reached a certain threshold of concern. These are Mexico, Russia, and sadly, the United States," Jeff King, president of the ICC, said in a statement.

"While conditions in the US are in no way comparable to other countries on the list, a certain segment of the culture and the courts seem to be intent on driving faith out of the public square," King continued. "There have been too many court cases with bad decisions to miss the clear trend line."

Worst of the worst countries listed in the report include North Korea, Iraq, Syria, and Nigeria. The report noted that Christians are persecuted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a class system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s monitoring of its citizens, and prison and labor camps.

"DPRK is the world's worst human rights violator and the most violent persecutor of Christians," the report states. "Since Christianity elevates God over the State, North Korea sees Christianity as a dangerous movement that challenges their power and must be silenced."

North Korea has also been frequently mentioned by other groups for its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In the Open Doors USA's own list of persecutors against Christians,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been listed as the top persecuting nation against Christians.

For Iraq, Syria, and Nigeria, the report noted the persecution Christians face from extremist groups such as ISIS, Boko Haram, and Fulani militia.

The report also listed Egypt, Saudi Arabia, Pakistan, India, and China as 'core countries' that persecute Christians. In countries such as Egypt, Saudi Arabia, and Pakistan, radical Islam was cited as a source of persecution, whether engrained in the government or as practiced by the majority of citizens in the country. Similarly, radical Hindus who harass and perpetrate violence against Christians were noted as a source of persecution in India, while China was described to persecute Christians by cracking down on churches and religious minorities.

Russia and Mexico were two other countries listed under 'new and noteworthy'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In Mexico, Protestant Christians "experience violence as well as loss of land and livelihood," the report states, while in Russia, Christians face threat of being fined for speaking about their faith due to the country's new 'Yarovaya' laws.

The persecution that Christians face in the U.S. are due to "current events and shifting perceptions," the report states, which are "causing conflicts between Christian beliefs and public sentiment."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ignificant Majority of the 115th Congress Identifies as Christian, Pew Study Shows

Most members of the 115th Congress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 according to a new Pew Research Center study released on Tuesday.

The study showed that almost 91 percent (90.7 percent) of the 115th Congress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The percentage i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the 114th Congress, in which almost 92 percent (91.8 percent) identified themselves as Christian.

Most of the Republicans in Congress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Only two Republicans do not, and instead identify themselves as Jewish. Among the Democratic members of Congress, 80 percent identify as Christian. Others identify themselves as Buddhist, Hindu, and Muslim. One member identifies as Unitarian Universalist, and one member identifies as religiously unaffiliated.

One of the aspects of the study results that was noted by the researchers was the significantly high number of those identifying as Christian in Congress despite Pew's recent studies showing that those who identify as Christian in the general American population has been on the decline. In contrast, though Pew had found that 23 percent of Americans identify themselves as religiously unaffiliated, that population is represented by only one member of Congress.

A recent Pew study found that 90.7 percent of members in the 115th Congress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 (Photo: 'Cliff' user on Flickr / CC)

"What explains the difference? Why have the nones grown in the public, but not among Congress?" Greg Smith, associate director for research at Pew, told Religion News Service. "One possible explanation is people tell us they would rather vote for an elected representative who is religious than for one who is not religious."

Among those who identify as Christian, the number of Protestants in Congress has seen a decline over the decades, while the population of Catholic members of Congress has grown. About 56 percent of the 115th Congress identifies as Protestant, a decline from 75 percent who did so in the 87th Congress in 1961. Meanwhile, Catholics make up some 31 percent of the new Congress, an increase from 19 percent in 1961.

Franklin Graham, Samuel Rodriguez, Paula White Among Clergy Members to Pray at Trump Inauguration

Clergy members who will be praying at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inauguration ceremony include White, Black, and Hispanic pastors, a Catholic cardinal, and a Jewish rabbi.

The six people of faith praying at his inauguration are Franklin Graham, president of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Bishop Wayne T. Jackson, pastor of Great Faith Ministries International, Rev. Samuel Rodriguez, founder of New Season Christian Worship Center, Pastor Paula White of New Destiny Christian Center in Florida, Cardinal Timothy Dolan, Archbishop of New York, and Rabbi Marvin Hier, the founder of the Simon Wiesenthal Center.

"It is a privilege to be asked to take part in the inauguration of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am very thankful that prayer and reading from God's Holy Word will be a part of this important ceremony as the world watches," Graham posted on his Facebook page Wednesday. "We need God's blessing and favor on this nation and our new president, Donald J. Trump. I'm praying for that -- will you?"

Jackson said that he was surprised when he was chosen to be a part of the faith leaders at the inauguration. He said that his prayerful role is not an endorsement, but a duty as a man of faith.

"I received a call that I was chosen to be a part of the swearing in," Jackson told WXYZ Detroit. "I was surprised and also humbled by it."

"We teach love at our church, we teach scripture," he continued. "I am putting together a benediction that is going to represent love and unity, togetherness."

Rodriguez said that he has "enjoyed getting to know President-elect Trump and his team over many months," and also expressed his gratitude at being able to pray at the inaugural ceremony.

"It is with deep gratitude that I express my thanks to President-elect Trump and Vice President-elect Pence for affording me the privilege of participating in their swearing-in ceremony on Jan. 20. There is truly no greater honor than to serve one's country in such a special way on such a momentous occasion."

White, who has been accused by orthodox evangelical leaders of being a proponent of the "prosperity gospel," said that Trump was a "caring man," and loved God.

"I found a very caring man," she had said at one of his July rallies. "I found a man who had more integrity than most people that I had encountered. A compassionate man."

"I will be humbled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on stage with the new administration, other distinguished men and women of faith, and with the great sea of witnesses watching around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who continue to pray for God to bless America," she told The Christian Post.

Cardinal Dolan also said that he was honored to participate in the inauguration, and will "look forward to asking almighty God to inspire and guide our new president and to continue to bless our great nation."

Texas Begins Process to End Medicaid Funding to Planned Parenthood

Texas officially began the process to pull out Planned Parenthood from the state's Medicaid program in December by sending it a termination notice, after considering the move for over a year.

The organization received $3.1 million in funding from Medicaid, but the aid will be ceased in mid-January.

"Texans expect that when taxpayer dollars are granted to health care providers, it is only to those who demonstrate that the health and safety of their patients come before a profit motive that puts women at greater risk," the office of Governor Greg Abbott said in a statement.

Planned Parenthood can appeal the Texas government's decision at the state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 but a spokesperson for the abortion provider said the company is still deliberating whether to file the appeal in addition to challenging the termination notice in court,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Texas is a cautionary tale for the rest of the nation. With this action, the state is doubling down on reckless policies that have been absolutely devastating for women," said Planned Parenthood President Cecile Richards.

"The State has determined that you and your Planned Parenthood affiliates are no longer capable of performing medical services in a professionally competent, safe, legal, and ethical manner," Stuart Bowen Jr., head of 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at the Texas HHS Commission, wrote in his letter to Planned Parenthood.

Bowen Jr. said that the notice of termination sent to the organization is not the final step in defunding it via Medicaid, but that it is an initiation of the enforcement process.

Planned Parenthood said the decision could impact about 11,000 patients.

"Planned Parenthood continues to serve Medicaid patients and will seek a preliminary injunction in an ongoing lawsuit filed in November 2015, following the state's original threats to take action against Planned Parenthood's patients," said Yvonne Gutierrez, executive director of Planned Parenthood Texas Votes, the organization's political arm.

Bowen Jr. also wrote in the letter to Planned Parenthood that termination of services will not affect care for women in Texas and will be transferred to alternative providers in the state.

Blasphemy Trial Against Jakarta's Christian Governor Continues at Indonesian Court

The blasphemy trial against Jakarta's Christian Governor Basuki "Ahok" Tjahaja Purnama has been ongoing, and the latest court session took place on Tuesday. The 11-hour court session heard witness testimonies from the prosecution, all four of whom said Purnama should be detained.

Purnama is accused of insulting the Qur'an based on an edited video. He had also been campaigning for his second term in February 2017 elections.

The judges refused to dismiss the case as requested by Purnama's lawyers, who said that Purnama's human rights were neglected during the proceedings, and that there were several inaccuracies in the allegations.

In his first hearing on December 13, Purnama had denied that his intention was to insult the Qur'an. According to a report by Voice of America, Purnama said that his comments were meant to refer to politicians who misinterpreted the verses "because they do not want to compete fairly in an election."

If convicted, he could face up to five years of imprisonment.

Prior to and during the recent hearing, supporters and opponents of Purnama gathered at the Agriculture Ministry, where the court session was held. Some 2,500 police officers stood watch at the site, according to Channel News Asia.

Judge Dwiyarso Budi Santiarto said that Purnama could appeal to a higher court if they disagreed with the court's decision.

A professor admitted to editing the video of Purnama's remarks while campaigning and posted the edited tape on Facebook to make it look like the governor was insulting the Qur'an.

Purnama was referring to the verse Surah 5:51, and says that "You've been lied to by [people] misquoting the 51st verse of the Al-Maidah." But the video makes it seem that the governor is telling people that the Qur'an lies to people.

The National Police had questioned the professor on November 17, and his lawyers also told local reporters that he admitted to editing the tape to distort the governor's message.

Purnama is being supported by human rights activists, lawmakers as well as religious leaders.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수소수의 활성 산소 제거 과정

수소 + 활성산소 ▶ 수소 + 활성산소 ▶ H_2O

체내에 물과 함께 흡수된 수소가 분리되어 / 몸에 나쁜 활성산소와 결합이 되고 / 무해한 물로 바뀌어 소변이나 땀등으로 배출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키친아트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Pure & Good
Hydrogen Generator with Water Purifier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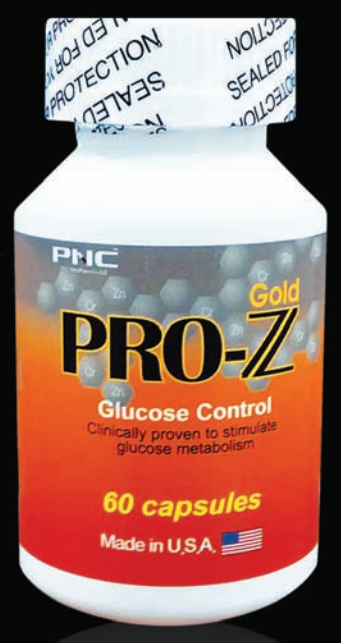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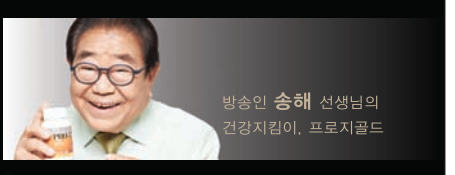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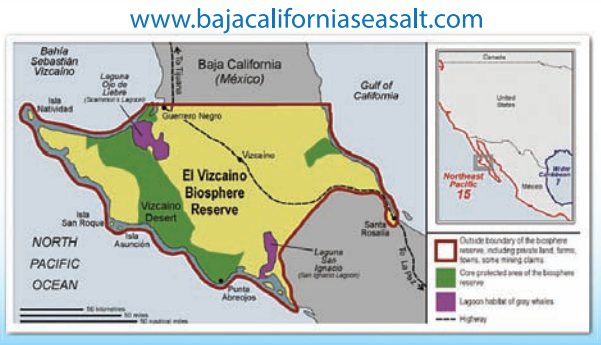
세계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주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i

구입문의 213. 434. 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